한눈에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실제와 경험을 중심으로

지은이 박수민

“

필자는 지난 12년간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이 글은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 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제7대륙인 “디아스포라 사역(Diaspora Ministry)”에 관한 간략한 안내서다.

”

차 례

04 | 서론

06 | I 부 : 한눈에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

07 | 1. "디아스포라(DIASPORA)"란?

10 | 2. 성경과 선교역사로 보는 디아스포라

16 | 3. 디아스포라 사역의 10가지 특성(特性)

29 | 4.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리고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33 | 5.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필요

38 | 6.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잠재력(潛在力)

41 | II 부 :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42 | 1. 다방향 선교(多方向宣敎), 공유선교(共有宣敎) 시대의 등장과 디아스포라 선교

46 | 2.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Paradaigm)에 대한 시대적 요구

59 | 3. 새로운 선교 생태계(生態系)를 꿈꾼다.

63 | Ⅲ부 :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실제와 경험

64 | 1. 사이판 사역 (2002.3 – 2003.2)

72 | 2. 삿포로 사역 (2004.5 – 2008.9)

83 | 3. 동경 사역 (2009.9 – 2015.6)

1) 동경 닛포리 국제교회

(TNIC: Tokyo Nippori International Church)의 시작

2) 연합 전도대회와 동경화인 크리스천 센타

(JCC: Japan Chinese Christian Ceneter)의 탄생

3) JCC 사역 소개

4) JCC 존재 목적, Vision 그리고 한계와 도전

5)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통한 일본 선교

6) 일본 디이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120 | 4.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리서치(2015.8–2016.5)

– 사역의 현황과 가능성

127 | 결론

서론

21세기의 대표적인 현상인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대규모 이민(Immigration)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지를 발견하게 했다. 선교의 제7대륙이 발견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그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일은 느리게 진행된다. 특히, 선교계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 변화, 교회 변화, 그리고 그 다음이 선교계의 변화일 것이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새롭게 열리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선교적 반응이다.

21세기의 대표적인 현상인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대규모 이민(Immigration)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지를 발견하게 했다. 선교의 제7대륙이 발견된 것이다.[1] 이 제7대륙은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대륙이다. 제7대륙은 글로벌화된 지구촌 곳곳에 산재하기에 접근이 매우 용이한 선교지이다. 이 선교의 신대륙인 제7대륙의 거주민은 디아스포라(Diaspora)들이다. 전세계적으로 모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1) 제7대륙이라는 명칭은, 선교적으로 새롭게 발견된 일곱번째 대륙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필자가 임의로 정한 명칭이다.

살아가는 이들이 지난 40여년간 2.5배 성장해, 약 2억명에 이른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

필자는 지난 12년간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이 글은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제7대륙인 "디아스포라 사역(Diaspora Ministry)"에 관한 간략한 안내서다. 1부에서는 주로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뤘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다. 2부에서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뤘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사역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디아스포라 사역의 실제 예로써, 지난 기간 경험했던 사이판에서 아프리카까지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이야기를 경험 중심으로 풀어 놓았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의 사역이다. 새로운 영역이 늘 그렇듯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도 많은 호기심을 일으키지만, 디아스포라 사역이 갖는 비교적 짧은 역사로 인해 피부에 와 닿는 실제 지침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 결핍된 부분은 실제적인 사역의 예(例)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알려진다면 더 빠른 시간내에 극복될 것이다. 이 짧은 글이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I 부
한눈에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

1부에서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다루고, 디아스포라의 한 갈래로써 디아스포라 중국인, 특히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해서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디아스포라(Diaspora)”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적인 인구의 대이동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섭리적 기회에 주목하고, 숙고(熟考)하고 , 반응해야 한다.

디아스포라는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자신의 출생국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이주해 사는 특정 종족(Ethnic) 집단을 가리킨다.[2] 어언적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대 그리스어(διασπορα) 에서 ‘~너머’를 뜻하는 ‘디아(dia)’와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로(spero)’가 합성된 단어다. 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출발한 이 단어는 근래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규모 이민그룹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확대사용 되고 있다. 예를들어 ‘디아스포라 한국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디아스포라 인도인’ 등이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BC 721 년 앗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10 개 지파가 앗시라아 전역에 흩어지게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BC 597 년 남유다의 멸망과 뒤이은 유대인의 흩어짐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확장시켰다. 신약시대(로마제국,사도행전 8:1)에 이르러 유대인 디

2) https://ko.wikipedia.org/wiki/디아스포라

아스포라는 아시아, 아르메니아, 이탈리아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20,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기아,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런 대규모 이민의 흐름을 가속화(加速化) 시켰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민의 숫자는 1965년 7,700만 명, 1995년 1억 2,000만 명, 현재는 2억 명에 이르렀다. 40년만에 2.5배 증가했다.[3]

이런 세계적 인구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디아스포라'라는 거대한 흐름, 그리고 이 그룹이 가진 영향력, 가능성 등을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나는 디아스포라 세미나, 디아스포라 신학, 디아스포라 포럼… 등의 등장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인구 2억명에 이르는 새로운 선교의 신대륙이 등장했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디아스포라"는 그들이 떠나온 고국과 그들이 새로 정착한 국가에 동시적이며 쌍방향적인 영향을 미친다. 디아스포라는 이민 1세대뿐 아니라, 2세대, 3세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두 곳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의 교량역할은 경제적, 정

---

3) 르몽드 디플로 마티크 기획, 최서연 이주영 옮김,「르몽드 세계사 2 세계질서의 재편과 아프리카의 도전(1) 」(서울: 르몽드 디플로 마티크 코리아, 2015), 62.

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두루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적인 것이다. 이 영향력이 디아스포라 사역이 갖는 "사역적 파급력"이다. 디아스포라들이 갖는 고국과 이민국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매개로 복음이 더 넓고 깊게 전달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적인 인구의 대이동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섭리적 기회에 주목하고, 숙고(熟考)하고, 반응해야 한다.

2. 성경과 역사로 보는 디아스포라

성경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왜 부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부터 그 기록이 시작되었다. 사실 성경은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예(例)는 끝이 없다. 우선 구약성경에는 에덴을 떠나야 했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부르심을 좇아 갈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야기, 고향을 떠나 살았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나라의 멸망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생활로 이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생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밧모섬에 강제 이주되어 우리가 영원히 이주 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왜 부르셨는지, 그들을 어

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디아스포라 된 백성들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그들을 거룩한 나그네된 백성으로 사용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과부와 고아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또한 디아스포라들의 하나님이시다.

선교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개신교 세계선교는 시대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挑戰),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전(應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최종적 선(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역사였다. 그런 면에서 시대 조류의 변화는 세계 선교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였다. 따라서 오늘날 디아스포라 인구 이동에 의한 세계적 인구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카이로스"[4] 라는 선교 교재의 "다섯 확장기의 세 시대" 부분을 기초로 하여 선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디아스포라 사역을 분석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첫번째 시기는 연안선교(沿岸宣教) 시대이다. 연안 선교시대

4) 「把握時機 – Kairos 宣教生命過程 第4版 」(Living Spring International), 98–107.

는1792 년-1910 년 기간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암 캐리(William Carry) 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통이 발달해 있으면서도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지리적 접근이 용이했던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선교 자체가 탄생하고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였다. 갓 태어난 아기와 같던 '선교'는 안전하고 보호된 환경이 필요함에 따라 주로 식민지의 해안지대에서 자리를 잡고 발전해 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위대한 시작의 시기는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복과 맞물려서 돌아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강력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해안지역에 식민지 거점을 확보했다. 그리고 당시 세계선교는 음과 양으로 그 토양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았다.

두번째 시기는 내지선교(內地宣敎)시대다. 내지선교시대는 1865년-1980년 기간이다. CIM(China Inland Mission)의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 시기의 선교는 해안지대의 한계, 외국인 거주지역 중심 선교의 한계를 넘어서, 내륙 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안 선교시대를 선교에 대한 눈이 뜨인 시대라고 한다면, 내지선교 시대는 선교에 있어서 혁명적인 패러다

임 전환의 시기였다.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선교회는 지리적으로 내륙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내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국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중국 현지인의 옷과 머리 모양을 취했고, 이를 통해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냈다.

허드슨 테일로의 "내지선교"라는 혁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후 수 많은 단체(SIM:Sudan Interior Mission, AIM: Africa Inland Mission 등)와 개인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새로운 시대도 여전히 서양 제국주의 토양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아쉬운 면이 있긴 했지만, 최소한 해안(海岸) 이라는 공간적 장벽과 현지문화라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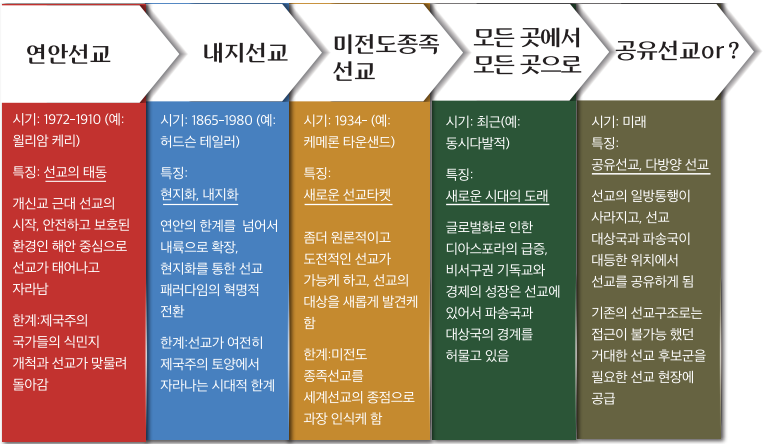
세번째 시기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다. 카메론 타운샌드(Cameron Townsend), 도널드 맥가브란 (Donald MacGabran) 을 중심으로 1934 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발전을 거듭하여, 1974 년 로잔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이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미전도 종족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선교 타겟으로 떠올랐다. 미전도 종족선교가 종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게 한 점, 좀 더 원론적이고 도전적인 선교를 가능케 한 점, 새로운 선교의 타겟을 발견케 한 점에 있어 선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

과적으로 소수지역에 다수의 선교사를 배치하게 된 점, 미전도 종족 선교가 마치 세계선교의 종점인 것처럼 과장 인식하게 된 점들은 아쉽게 생각된다.

네번째 시기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의 시대다. 이 시기는 선교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변화가 도래한 시기이다. 이전의 선교도 연안선교에서 내지선교로의 전환과 같이 나름대로 혁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다. 그러나 연안 선교시대, 내지 선교시대, 미전도 선교시대 등은 모두 한 가지 틀 속에 갇혀 있었다.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의 선교, 즉 서구국가에서 비서구국가로, 제국주의 국가에서 식민지 국가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선교였다. 물론 이런 기본 토대는 선교사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시대적 환경이었으며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선교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어떤 패러다임이 다음세대 선교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 미래의 선교는 네번째 시기, 즉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의 중심에는 디아스포라 선교가 자리 잡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선교를 다방향, 공유의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DNA(유

전자)를 가지고 있다. 미래의 선교는 그동안 일방 통행되었던 선교를 "다방향과 공유"를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II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디아스포라 사역의 10가지 특성(特性)

디아스포라 사역의 특성은 이미 앞의 글의 몇 곳에서 산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디아스포라 사역은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역이다.

혹자는 선교는 시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 같은 선교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시대" 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1년에 네번 바뀌는 계절 같이 생동감 있게 변해 왔고, 사람들은 그 시대라는 계절의 변화에 발 맞추어서, 멋진 계절의 옷을 입어 왔다. 더운 여름에 짧은 반팔을 입고, 추운 겨울에 오리털 파카를 입어 주는 것이 건강에 좋고 보기에도 좋다. 여름에도 여전히 "남산 위의 저 소나무"를 고집하며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다면 얼마나 덥겠는가?

글로벌 시대가 열어준 2억명의 이민시대는 새롭게 바뀐 계절이다. 이제 자신의 패션 감각과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계절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입을 옷을 결정해야 한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이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가장 유력한 사역이다. "글로벌 계절에 맞는 디아스포라 사역의 옷을 입으라!" 이

것이 필자의 권면이다.

2) 디아스포라 사역은 추수의 때(時期, SEASON)가 확실하게 있는 사역이다.

때를 놓치면 익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없게 된다. 필자는 2002년 – 2003년, 1 년간 사이판 화인교회에서 사역에 동참했다. 당시 사이판에는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한 의류공장들이 있었다. 공장노동자들이 대부분 3년 계약직으로 중국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이판 화인교회는 한때 500 여명 까지 성도가 있었고, 10 여년간의 사역을 통해 1,300 여명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귀국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중국내 40 여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되었으며, 요르단과 사이프러스(Syprus) 같은 해외지역에도 화인교회가 개척되었다. 디아스포라 사역의 폭팔적 영향력, 선교적 가능성이 드러난 사역이었다.

그러나 1992 년 개척된 이 교회는 불과 15년 후, 의류공장의 철수로 인해 한때 3만명에 이르던 화인이 수 백 명 대로 줄어들어 수십명대의 교회로 축소되었다. 추수의 때가 지나 간 것이다. 사이판 뿐만이 아니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때”가 중요한 사역이다. 추수의 시기가 도래 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일해야 한다.

3) 디아스포라 사역은 국내외 모든 사람이 선교를 더 쉽고 빠르게 접하고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자문화 디아스포라 사역의 경우, 굳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더라고, 타문화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지금 유럽, 북미, 한국 등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외국인 사역들이 그 좋은 예이다.

동경에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할 때, 동경의 한국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다. 당시 우리는 성도들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마음껏 식사 대접을 하라고,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쌀, 김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었다. 한인교회들도 선교헌금으로, 무료 이발봉사 등으로 동참했다. 한 일본어 학교 이사장님은 헌금과 예배장소 제공으로 선교에 동참하셨다. 이들 가운데 동경으로 사역지로 옮겨가기전 알았던 분은 한분도 없다. 모두 동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된 이웃분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도 일본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외국인에 불과했지만, 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향한 선교에 동참했던 것이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다. 바다를 건너가지 않아도,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직장과 가족을 떠나 멀리

가지 않고도 멋진 선교사역을 하셨다.

누구나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선교지에 쉽고 빠르게, 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디아스포라 사역의 특징이다. 저가항공사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켰던 모 항공사가 이런 구호를 자기 회사 비행기마다 써 놓았다. “Now Everyone Can Fly!” 이 표어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Now Everyone Can Do Mission!” 디아스포라 사역은 모든 이들에게 선교에 동참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

4) 디아스포라 사역지는 블루오션(Blue Ocean) 지역이다.[5)]

블루오션은 경영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새로이 탄생해서 경쟁이 거의 없는 시장을 말한다. 선교사의 사역은 현지인이 할 수 없는 부분, 아직 시작하지 못하거나,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섬기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현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역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이런 중복을 피하면서도, 개발되지 않은 부분, 즉 잠재된 부분이 많은 사역이다.

필자는 안식년 기간인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아프리카에 있었다.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일본의

5) https://namu.wiki/w/ 루%20오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보다도 더 초기단계에 있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약 200만-250만의 중국인들이 신이민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6] 거의 모든 지역에 디아스포라 화인교회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미약한 단계에 있었다. 아프리카 전체가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신대륙이었다.[7]

일부 서구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디아스포라 사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일본인, 태국인, 베트남인 등을 대상으로 하든지 대부분 새로운 개척 사역이다. 디아스포라 필드는 잠재된 영역이 크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사역 필드인 것이다.

---

6) 아프리카 중국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중국과 아프리카 두 곳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문, 책 등에서는 200만명에서 250만으로 추정한다. 아프리카는 중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전진기지이며 지속성장을 위한 지하자원 공급처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매우 중시하며, 국가적 프로젝트로 중국인들을 아프리카에 이민시키고 있다. 이에 편승해서 아프리카 중국인들의 숫자는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중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들은 주로 서양인들에 의해 쓰여졌다. 대표적인 책으로는『차인나프리카』(세르주 미셸, 미셸 뵈레) ,『아프리카 중국의 두번째 대륙』(하워드 프랜치) 등이 있는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타탕한 면도 있지만, 오랜기간 아프리카를 독차지 했던 서구인들의 시야가 농후하게 배여 있는 것으로 공평한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7) 디아스포라 아프리카 중국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 Ⅲ부: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실제와 경험, 4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리서치(2015.8-2016.5)"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5) 디아스포라 사역에서는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양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좋은 밭을 가진 양떼가 디아스포라 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중에는 유난히 이런 좋은 밭을 가진 양떼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마음은 비교적 열려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살아왔던 본국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쳤던 고국의 문화, 종교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면서 타국에서의 외로움, 고독,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겨난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때, "가난한 마음, 좋은 밭"이다. 바로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이 디아스포라 사역이다.

6) 디아스포라 사역은 영향력이 큰 사역이다.

디아스포라를 구성하는 사회계층은 유학 온 지식인, 일을 찾아 온 외국인 노동자, 좀 더 나은 기회를 따라 온 이민가정, 난민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떠나 온 고국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도 그렇고, 외국에 장기 거주해도 그러하다. 오늘처럼 통신과 교통의 발달한 시대에는 고국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본에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은 유학생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귀국 후 대학교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많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생명의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디아스포라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듭난 디아스포라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런 위치에 더 많이 서게 된다.

7) 디아스포라 사역은 강한 선교적 DNA(유전자)를 갖고 있다.

디아스포라 사역 자체가 선교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선교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 개인적으로 지난 기간 몸 담었던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하나같이 선교적 파워를 갖고 있었다. 북경한인교회는 지난 20여년의 사역을 통해 50여명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인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사이판 화인교회는 귀국자(Returner)를 통해 40여곳의 중국내 가정교회와 두 곳의 해외 화인교회를 개척했다. 이 모든 곳이 평범한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일본의 삿포로 국제교회와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 출신들중 많은 이들이 선교사명의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나 교회가 특별했다기보다는 디아스포라들의 부르심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교

의 현장에서 태어나고 자라난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민들레 홀씨를 날리는 것과 같다. 민들레 홀씨는 바람이 불면 바람부는 대로 다 날아간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홀씨는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생명의 씨앗을 안고 날아간다. 날아간 씨는 그 어느 땅엔가 떨어져 뿌리 내리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낸다. 디아스포라 사역의 어려움인 동시에 놀라운 선교적 가능성은 민들레 홀씨처럼 다들 떠나 버린다는데 있다.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한다. 조금 자랐다 싶으면 졸업을 해서 떠나고, 직장 찾아 떠나고, 3,4년 지나면 교회의 60-70%가 어디론가 떠나 버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디아스포라 사역에는 극심한 유동성이 있다. 그렇지만 떠나는 이들이 생명의 씨앗만 가지고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다면, 디아스포라 교회는 엄청난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 매 3,4년마다 성도의 60-70%가 선교사가 되어 파송받는 것이다. 떠나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송되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이처럼 디아스포라 사역은 강한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다.

8) 디아스포라 사역에는 더 강한 부르심의 확신을 필요로 한다.

부르심의 확신은 단지 디아스포라 사역에만 필요한 것은 아

니다. 모든 사역에 그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사역은 이 보다 한 발 더 나간다. 디아스포라 사역에는 더욱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사역 자체가 막 시작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흔드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역을 이해해 주거나,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부르심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다.

필자는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중국인 대상의 디아스포라 사역을 했다. 특이한 사역이기에 사람들이 늘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 “중국어는 하는가?, 일본어도 하는가?” 이런 기초적 질문만 10여년 들었던 것 같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동물원 원숭이처럼 신기한 대상이 되었지,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의 대상은 아니었다. 사역의 대상, 내용이 다른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다. 같은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더 외로운 느낌이 든다. 자국에서 하는 디아스포라 사역은 어떠한가? 예를들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영국인이 영국에서, 미국인 미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디아스포라 사역을 한다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파송교회나 후원자들로부터 선교사로 인정 받기가 어렵다. 그전보다는 인식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국내

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약하다. 선교사로서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사역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사역자의 길은 타국에서 하든, 자국에서 하든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부르심이 없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한 길을 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부르신 부르심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다.

9) 디아스포라 사역은Total & Long Care(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양)를 지향한다.

디아스포라 사역의 진면목은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나라로 귀국했을 때 나타난다. 만일 이들이 귀국 후 주님과 몸된 교회를 떠난다면,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한 사역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이 귀국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 간다면, 그 사역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된다. 따라서 진정한 디아스포라 사역이 되려면 Total & Long Care(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양)를 지향해야 한다.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인으로 우리 곁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귀국 후에 자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귀국 후의 정기적인 연락과 심방,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지속적인 케어를 통해 신앙이 외국생활의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로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진정한 변

화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영국의 한 선교단체를 알고 있는데, 이 단체는 영국에 유학 온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킨다. 그리고 귀국 한 이들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집중 케어 한다. 귀국자들을 위한 정기 캠프를 열어 귀국후 식어지기 쉬운 신앙의 불을 다시 살려주고 있다. 이 단체는 그야말로 영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향한 Total & Long Care 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선교단체였다. 이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이외에도, 귀국자들에 대한 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세미나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홍콩에서 모임을 갖는 Returner Conference, 귀국 일본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JCFN 일본 지부 등이 좋은 예이다.[8] 유럽의 경우 귀국을 앞둔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귀국준비 캠프를 열기도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사이판 화인교회의 케이스도 동일하다. 교회의 싱가폴 목사님이

---

8) 디아스포라에 대한 귀국후 케어는 주로 중국, 일본에서 특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유가 있다. 중국, 일본의 국내교회는 디아스포라들이 신앙을 갖게 된 미주, 유럽의 교회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누어지는데, 두 곳 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디아스포라 일본인들은 경직된 전형적인 일본교회에 적응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내 귀국자를 심방함으로 지속적인 케어를 했다. 이 점이 사이판 화인교회가 그냥 사이판에 있었던 한때 융성했던 교회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력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교회가 되게 한 비결이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사역은 초기단계부터 귀국후의 삶까지 염두해 두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당장의 필요에 의해 출발하지만, 좀 더 먼 지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반쪽의 사역으로 끝날 수도 있다. 반면 디아스포라의 귀국 그 이후로까지 이어지는 길고 종합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는다면, 디아스포라 사역은 더욱 폭발적인 특유의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10) 디아스포라 사역은 다양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사역대상과 사역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사역 대상에 따른 분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 다이스포라 필리피노 사역, 디아스포라 한국인 사역, 다아스포라 일본인 사역, 디아스포라 태국인 사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사역지역에 따른 분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가 어디서 사역하는가에 따라서 자문화권(自文化圈) 디아스포라 사역과 타문화권(他文化圈) 디아스포라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9]

9) 예를들면, 자문화권(自文化圈) 디아스포라 사역은 한국인이 자문화권인 한국에서 외

이러한 구분은 디아스포라 사역자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준비의 강약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진행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타문화권 디아스포라 사역이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역 대상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추가로 선교사 본인이 거주 할 또 다른 타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삼중(三重)언어, 삼중문화의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로인해 파생될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문화권 디아스포라 사역을 할 경우에는 언어적 문화적 접근이 타문화권 디아스포라 사역보다는 용이하지만, 선교사역의 자립, 선교사 정체성 확립 등 다른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한다.

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타문화권(他文化圈) 디아스포라 사역은 한국인이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지역에서 외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분류는 필자의 사역적 경험을 근거로 한 분류이며, 학문적인 근거는 보충 연구가 필요하다.

4.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리고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2011년 현재 전세계 화인의 숫자는 71,385,700명에 이른다

디아스포라 한국인, 디아스포라 필리피노, 디아스포라 유대인 등 수많은 디아스포라 민족집단이 있지만, 필자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 왔다. 이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숫자적으로 많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그들의 존재가 미래 기독교 세계선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보통 화교(華僑)라고 한다. 여기서 '화(華)'는 중국을 의미하며 '교(僑)'는 타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화교는 타국에 임시로 거주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2,3세가 생겨나고, 대부분이 현지 국적을 취득해 영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을 화인(華人)이라 부른다. 화인(華人)은 혈통으로는 중국인이지만, 중국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가진 중국인은 아니다. 현지 국적을 취득해 현지 국가에 영구정착한 사람들이다. 영어로는 'Overseas Chinese'

혹은 'Ethnic Chinese' 이라고 한다.[10]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 중국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외국인은 중국인이다. 오늘날 세계 유명 관광지의 가장 부유한 고객은 중국인들이다. 가장 번화하고 세련된 도쿄의 긴자(銀座)거리에서부터, 아프리카 케냐의 사파리 관광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중국인들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화교와 화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화인은 세계 90여 개국에 5,000 만명 정도로 추산한다.[11] 그러나 세계 최대 화인선교기구인 世界華人福音事工聯絡中心(Chinese Coordination Center of World Evangelism)의 2011년 통계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세계 화인의 숫자는 71,385,700명에 이른다.[12] 필자는 후자의 통계를 더욱 신뢰한다. 그리고 화인중 90% 이상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90%이상의 화인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귀화해서 그 나라 시민이 되었다.

---

10) 정성호,「화교」(서울: 살림출판사, 2004), 3-4.

11) 정성호,「화교」(서울: 살림출판사, 2004), 13.

12) 華福中心研究及發展部, "海外華人人口與華人教會統計 ," 「 今日華人教會 」 2011년 2월 , 10.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2014년에 6월 현재 전체 일본 화인의 인구는 약 1,206,150명에 이른다.

일본은 고대부터 일본 밖에서 온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고 그 영향력이 컸다. 이러한 도래인(渡來人)[13] 은 일본사회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무사정권 이래로 주변국과 소원해지면서 쇄국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일본의 외국인은 극히 적은수가 되었다. 명치유신 이후 외국인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했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20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외국인은 매우 적은 숫자였다. 그렇지만 20세기말 국제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 역시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 그중 중국인은 1970년대에는 4-5만명대였고,[14]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4년에 6월 현재 전체 화인의 인구는 약 1,206,150명에 이른다.[15]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했으며

13) https://ko.wikipedia.org/wiki/도래인

14) 陳鴻瑜,「海外華人之公民地位與人權」(台灣: 華僑學會總會, 2014), 100.

15) 일본에서는 법무성(법무부)에서 외국인 통계를 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재 일본의 중국인 숫자는 78만명이다. 그러나 이는 대륙출신 중국인만을 통계한 것이며, 일본

그 숫자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심각한 노동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종전과 다른 개방된 이민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변화로 가장 많이 늘어날 인구는 중국계 일본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구 환경의 변화에 비해 디아스포라 중국인을 향한 복음전파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거주 화인 전체를 통계한 것은 아니다. 화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다시 통계를 잡으면 120만정도가 정확한 숫자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륙출신 788,865명(2014년 6월 현재) , 대만출신 104,354 명, 말레지아 출신 12,090명, 싱가폴 출신6,247명(대부분이 중국계), 잔류고아 출신 일본인(혹은 중국인) 239,789명(2011년 통계, 이중 일부만 중국국적), 귀화중국인 40,806(2004-2014, 10년간 합계), 불법체류 화인13,999명(중국,대만,말레시아, 싱가폴 포함한 화인)이다. 일본에서의 디아스포라 중국인(화인인구)은 전체 일본 인구의 1.05%에 이른다.

5.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필요

120만명의 중국인중 단 0.2%의 중국인만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곳이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다. 99.8%의 양이 우리 밖에 나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120 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며, 복음을 들어 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일본 전국에 산재한 중국인 교회는 2015 년 현재 45 개 정도에 불과하다.[16] 일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의 예배 인원은 20-30 여명이다. 여기에 일본 교회내의 중국어 예배인원과 일본 교회 안의 중국인 등을 합산하여도 주일예배 참석인원은 넉넉하게 잡아 2,500-3,000 여명에 불과하다. 일본내 디아스포라 전체 중국인 수의 0.2%에 지나지 않는 수이다. 120 만명의 중국인중 단 0.2%의 중국인만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곳이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다. 99.8%의 양이 우리 밖에 나가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통계와 가정교회 통계의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일본내 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륙 출신의 경우 낮게 잡아 5%가 기존의 그리스도인으로 추

16) http://tokyo-jcc.com/link5/

정된다. 숫자적으로는 최소 60,000 명 정도가 이미 그리스도인임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2,500-3,000 여명의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모든 디아스포라 사역이 그러하듯이 현지 지역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지 교회, 즉 일본 교회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과 복음전도가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애석하게도 일본교회의 디아스포라 사역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미미한 상황이다. 북미, 싱가폴, 한국과 달리 일본교회는 자국내 디아스포라 외국인 선교에 거의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자국에서 일본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기독교는 일본 내 소수종교에 불과하다. 일본선교 150 주년을 넘어섰지만, 일본의 그리스도인의 수는 카톨릭 포함, 2013 년 현재 전체 인구의 0.82%로 1% 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17] 수치상으로 볼 때, 일본자체가 선교가 매우 필요한 거대한 미전도 종족 집단이다. 그래서 일본교회 입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외국인 사역은 매우 필요하지만 실천할 여력이 없는 사역인 것이다. 엄청난 필요에 비해, 필요를 충족시킬 에너지는 너무나 적은 것이다. 이처럼 일본 교회의 현실과 중국인

17) JMR 調査レポート(2014 年度) 概要編, p4, 2015. 4, 東京基督教教大学 国際宣教センタ 日本宣教リサーチ.

디아스포라 사역의 필요성 사이에는 넓고 깊은 갭이 존재한다.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복음화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일본에는 교회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자력으로 중국인 교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필자는 단기 선교팀이 오면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저희 동네에서 1시간 안에 교회를 찾으시면 제가 점심을 냅니다! 그리고 만일 하루 안에 동경에서 중국인 교회 하나를 찾아 내신다면, 제가 한 주간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교회를 찾는 것, 특히 중국인 교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농담이다.

유럽이나 북미지역은 그래도 오랜 기독교 역사와 문화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기독교적 토양 위에서 수 많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기독교적 역사나 토양이 거의 없다. 교회 수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수도 극소수다. 카톨릭을 포함해도 비율적으로 인구 130명당 겨우 1 명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자연스럽게 복음에 노출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으니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수많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믿지 못하고 있다. 복음에 접촉된 경험이 없는 99.8%에 이르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긴급하고도 거대한 필요에 비해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필요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다. 필자가 만나 본 많은 북미 화인사역자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나리타 공항(일본 도쿄 국제공항)을 여러번 지나가긴 했으나, 일본에 내려서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를 방문한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일본에는 방문 할 교회도, 만나야 할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기간 동안, 이처럼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존재, 선교적 필요는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띵마마(丁媽媽 ; 丁惟柔)'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 그녀는 일본의 화인교회중 역사가 깊은 동경국제교회의 장로였다. 그녀는 성공한 비지니스 우먼으로 선교에 열정적이었으며,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일본 디아스포라 화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했다기 보다는 "띵마마" 개인으로 더 알려졌던 것 같다. 그녀의 존재가 일본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대표해서 전세계 화인사회에 알려지곤 했는데, 띵마마가 2007 년 소천한 이후에는 그나마 간간히 전해지던 일본의 이야기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세계 화인사회에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둘째는, 중국과 일본이 가진 역사적인 문제 때문이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2차대전의 과오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웃나라인 중국,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 일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었다.

셋째는, 일본 자체가 가진 어려운 선교환경 때문이다. 일본은 오랜기간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리울 만큼 선교의 열매가 적은 나라였다. 일본의 많은 교회는 주중모임이 없다. 아니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매일 밤 8시,9시가 되어야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중 모임이 쉽지 않다. 또한 일본의 생활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적 장애물은 일본 선교를 어렵게 한다. 150년의 선교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1% 복음화율도 달성하지 못했다. 열매는 별로 없는데 선교비가 많이 드는 곳이니, 선교지로서 매력이 적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대부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경우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선교적 환경의 어려움은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사역이 발전하지 못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6.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잠재력(潛在力)

중국교회가 향후 10 년 안에 국제경험과 현장경험이 풍성한 선교지도자들을 다수 필요로 하게 될 때, 이러한 선교사들의 존재 여부가 중국교회 선교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헌신된 디아스포라 세계 화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중에서 이런 선교지도자들이 다수 나올 것이다.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비록 개척이 많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역동적인 가능성들이 내재(內在)된 사역이다. 그중 하나가 단순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적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인구중 20대, 30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일정기간 일본에 거주한 후, 정착하지 않고 일본을 떠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내 60-70% 가 3,4년내 일본을 떠난다. 이런 유동성은 목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교인의 60-70%까지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경제적 능력은 일본 경제수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정능력은 선교사역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들은 이미 타문화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타문화 훈련이 된, 그리고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된 젊은 그리스도인 그룹이 있다.

필자는 동경에서 사역할 때, 몇 차례 연합 집회를 준비해서[18] 섬긴 적이 있었는데, 매 집회마다 100여명의 중국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이들은 타문화를 이미 경험했고 문화적, 신앙적으로 준비된 선교자원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선교적 동원은 다가오는 중국인 선교사 시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중국인 선교단체의 설립, 중국인 선교계 지도자 배출 등 중국 대륙교회 선교 운동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교회가 향후 10 년 안에 국제경험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선교지도자들을 다수 필요로 하게 될 때, 이러한 선교사들의 존재여부가 중국교회 선교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헌신된 디아스포라 세계 화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중에서 이런 선교지도자들이 다수 나

18) 정식명칭은 東京華人佈道大會로 2013년 봄부터 2016년까지 5번의 대회가 있었으며, 총 7,784명이 참석하고, 61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세한 정보는 tokyo-jcc.com 참고.

올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운동은 한 지역의 선교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세계 선교 운동의 도화선(導火線)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아 동쪽 끝의 한, 중, 일 이 세 나라는 내부적 장벽을 넘어선 연합을 이루어, 새롭게 일어나는 제3세계(비서구권) 선교운동이 서구권 선교운동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모델들을 제시할 것이다.[19] 분열과 냉소(冷笑)의 관계를 넘어서는 연합과 일치의 선교운동, 일방통행과 시혜(施惠)의 선교모델을 넘어서는 다방향(多方向)과 공유(共有)의 선교운동에 불을 당기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가 될 것이다.

19) "동아시아 기독청년 대회"가 한 예이다. 이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의 기독청년들이 함께 만나 친구가 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선교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threetogether.org/?ckattempt=1

II 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Paradaigm)

선교의 역사에서 조명했던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은 해안 선교시대에서 내지 선교시대로, 내지 선교시대에서 미전도종족 선교시대로, 미전도 종족 선교시대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의 전환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안 선교시대, 내지 선교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시대는 한 가지 공통적 패러다임의 반복을 보였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제국주의 국가에서 식민지로 선교가 진행되는, 일방통행과 시혜(施惠)의 선교라는 특징이었다. 이제 세계는 일방통행과 시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고 있다. 2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다.

1. 다방향 선교(多方向宣教), 공유선교(共有宣教) 시대의 등장과 디아스포라 선교

즉 과거 서구국가에서 비서구 국가로 그 방향이 고정되었던 선교의 일방통행이, 이제 다방향 통행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교에서도 시혜의 시대는 저물고, 공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성경이 의도한 대로 성취되는데 있어서 태생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의 진리다. 일방통행의 선교에 있어서 성육신은 아주 높은 신분과 지위가 있던 사람들의 영웅적 헌신이 되기 쉬었다. 높고 좋은 환경(파송국) 에서 이 낮고 천한 환경(선교대상국) 으로 오신 그 분이 되곤 했다.

그러나 '다방향 (多方向) 선교'의 시대[20] 에는 선교헌신이 더 이상 영웅담이 아니다. 그것은 보통사람의 일상이다. 감동적일 수 있지만, 영웅적일 것 까지는 없다. 선교사는 이제 선진국이 아닌 이웃 파송국에서, 후진국이 아닌 선교대상국으로 이동한 것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본국에서 살았던 것 처럼, 피선교

20) 다방향(多方向) 선교: 여기서 "다방향 선교"란 필자가 일방 통행적, 한 방향 선교에 대한 대조적 의미로 사용한 단어다. 평등한 진정한 동역의 개념으로써의 선교를 말한다. 다방향 선교는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 이미 몇 몇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사용했다.

국에서도 그 연장선상의 삶을 살게 된다. 늘 그렇게 살아 왔으니까 말이다. 즉 성육신의 체화(體化) 다. 바로 이 지점이 과거보다 더 성육신적이다. 또한 일방통행의 선교 시대에는 선교의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의 이동이 특정 선진국이나 지역에 치우쳐 일방적인 시혜(施惠)의 선교가 되기 쉬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선교는 사실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었다. 오히려 작고 어린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겼다. 서로가 선교라는 다리를 통해 왕래했고, 피차 안위와 도움을 받았다. 성경적 선교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다방향이다.

다방향 선교시대에는 최소한 거시 환경적으로는 선교 파송국이나 대상국이 서로 일방적인 시혜 없이, 진정한 협력과 파트너쉽을 가질 수 있다. 그야말로 공유선교(共有宣敎)[21]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것, 즉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선교를 공유하는 것은 지난 시절 선교가 일방통행하면서 노출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줄여 줄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21) 공유선교(共有宣敎Sharing Mission): 여기서 "공유선교"는 필자가 선교국과 선교 대상국이 서로에게 선교를 일방적 시혜나 공급이 아닌, 대등하게 "공유"하는 개념으로서의 선교를 말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다. 공유선교는 선교라는 다리를 통해서 선교국과 피선교국이 피차 동등한 위치에서 선교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와 남미의 경제적 성공과 성장, 아프리카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이제 더 이상 세계 선교를 일방통행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 식민지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교회의 연수를 받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목회자들을 본적이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 교회의 장점을 배워서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공유하려는 사람들이다. 이제 더이상 선교적 배움은 일방적일 수 없다.

또한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다. 금세기들어 기독교 성장의 축, 세계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세계기독교 인구의 무게중심은 아프리카로 이동했고, 100년쯤 더 지나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로 그 중심이 더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22] 알리스트 맥그래스가 그의 책 『기독교의 미래』에서 말했듯이 기독교의 미래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채 아시아와 아프리카 속에 움트는 성장 속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23]

2009년 마크 놀이 쓴『세계기독교의 새로운 형태:미국의 경

---

22) 이재근,「세계 복음주의 지형도」(서울: 복있는 사람, 2015), 59.

23) 알리스트 맥그래스,「기독교의 미래」(서울: 좋은씨앗, 1906), 166.

험이 어떻게 세계의 신앙을 반영하는가?』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등장한다.

• 지난 주일에 미국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 예배자가 가장 많았던 교회는 흑인교회였다. 주일에 런던에서 교회에 가는 인구의 절반은 아프리카인이나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출신이다.

• 지난 주일에 영국에서 최소한 15,000명의 기독교 선교사가 지역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들 선교사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왔다.[24]

여전히 유럽, 미국 선교사들이 전세계 선교현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영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이다. 이제는 모든 국가가 선교사 파송국이요, 이와 동시에 모든 국가가 선교 대상국이 된 것이다. 경제적 표현을 빌리자면, 생산과 소비가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비서구 국가들의 경제적, 종교적 약진은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즉 과거 서구국가에서 비서구 국가로 그 방향이 고정되었던 선교의 일방통행이, 이제 다방향 통행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교에서도 시혜의 시대는 저물고, 공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

24) 이재근,「세계 복음주의 지형도」(서울: 복있는 사람, 2015), 59-61.

2.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 대한 시대적 요구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등장은 단지 서구선교사의 대체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살려내려면 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 케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에 들어선 선교

사실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미 상당히 진행중이다. 그리고 이런 전환은 자연스럽게 시대적 변화에 맞는 선교 시스템, 선교 단체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방통행에 적용되던 전통적인 선교 시스템, 방법론은 새롭게 등장하는 비서구권 선교사들에게 아직 필요한 옷이긴 하지만, 적합한 옷은 아니다. 우리는 비서구권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맞는 시스템과 단체를 구축해내는 일을 응원해야 하고 동참해야 한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등장은 단지 서구선교사의 대체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살려내려면 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 케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요구된다.[25]

25) 2010년 현재 세계 선교사 파송 상위 20개국중 , 10개국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지금 선교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들어섰다. 선교적 환경은 세계의 변화와 흐름을 따라 변화되고 있다. 선교적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적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전의 패러다임이 봄이었다면 이제 여름이 된 것이다. 여름에는 여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옷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지만 옷은 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옷은 불쾌감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친다. 한 여름에도 여전히 오리털 파카를 입고 지낼 수는 없다. 아무리 소매를 잘라내고, 접고 접어 입는다고 해도 오리털 파카가 반팔이 될 수는 없다. 시원한 반팔 오리털 파카는 모순이다. 아예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 조금 늦은 여름 혹은 조금 이른 여름의 차이는 있으나 여름에는 얇고 시원하고 짧은 옷을 입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다. 이처럼 선교의 주체들(개인, 단체, 교회)은 이제 여름 옷으로 갈아 입을 때가 됐다.

선교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의 비서구 국가다.(세계 기독교의 미래, 페트릭 존스톤, 한국기독학생 출판부, P247).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서구 단체들 대부분은 여전히 서구단체를 더 잘 배우고, 그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는데 사역의 방점을 찍고 있다. 사실 비서구 단체들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부르심은, 서구의 대체 세력으로서의 선교 동참이 아니라, 다방향 선교, 공유의 선교에 합당한, 지난 선교의 경험들을 넘어서는 자신들만의 길인데 말이다.

선교적 환경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변화가 감지된다.

첫째, 수요의 측면이다. 선교를 받아들이는 수요지(需要地)가 바뀌었다. 디아스포라 사역이 매우 상징적인데, 이제 선교의 수요지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인류가 사는 모든 곳이 수요지다.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케냐의 몸바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선교적 필요가 산재해 있다. 수요지와 공급지를 특정 나라와 지역으로만 구별하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물론 각 단체의 특성과 타겟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집중 할 수는 있으나,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너무나 넓게 산재되어 있는 거대한 선교적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다.

특히 과거 주 공급지였던 지역이 급격하게 수요지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네슬리 뉴비긴이 오랜 인도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해 선교지 인도보다 더 선교지화된 영국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이 깜짝 놀랄 일들이 더욱 많아졌다. 전통적인 선교의 수요지였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는 여전히 수요지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공급지로서의 모습도 갖추어가고 있다. 이제 선교의 수요지를 특정 지역으로만 분류히는 개념이나 정책은 여름이 되어도 벗지 못하는 오리털파카처럼, 앞으로 그 몸(개인, 단체, 교회)을 힘들게 할 것이다. 아마도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불쾌감과 몸의 건

강을 해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은 결코 더 깊은 영성이나 더 높은 수준의 퀄러티 추구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단순한 구조 조정만으로도 더 많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수요지의 변화는 선교주체들의 정책과 전략의 변화를 요구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던 과거 선교 수요지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과 전략이, 모든 곳이 선교지화 되어 버린 시대에도 통용되기는 어렵다. 일대변화가 요구된다. 이 시대의 선교 수요지는 더 이상 공급지보다 일방적으로 가난하거나, 일방적으로 교육이 부족하지 않다. 여전히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 반대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물론 성경적 원칙과 과거 오랜 세월 축척된 경험은 존중되고 활용되고 새로운 정책과 전략에 녹아나야 한다. 그렇지만 선교가 일방통행하던 시대, 시혜의 시대에 가졌던 패러다임은 다방향 시대, 공유선교시대에 맞게 재조정 되어야 한다.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제국주의 국가에서 식민지로, 서구에서 비서구로 시대에 시작된 근대선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 패러다임을 유지한채 발전해 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선교정책, 교육이 보편화된 나라에서 교육이 부재한 나라를 대상으로한 선교전략과 접근방법은 여전히 유용하나, 그것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피선교지중에는 선교사 파송국보다 더 부유하고,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지역과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공급의 측면이다. 선교를 공급하던 지역, 공급지(供給地)가 급격하게 와해되고 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선교사와 선교자원을 공급했던 유럽과 북미지역 등 서구권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0년 전세계 선교사 파송국가 랭킹 20위중에 10개국이 비서구권 국가들이다.[26] 새로운 공급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등장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곳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유럽과 북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긴하지만, 동시에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교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형국이다. 이제 국제 선교단체 안에서 아시아 사람, 남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급지의 변화는 그동안 특정 공급지에 맞춰졌던 정책, 전략의 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적 선교구조의 한계

공급의 측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선교사

26) Patrick Johnstone, 「The Future of the Global Church, PDF eBook Version 1.0 」 (Colorado Springs USA : Global Mapping International, 2011), 233.

선발과 파송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 과정은 이렇다. 1. 엄선해서 선교사를 선발한다. 2. 좋은 선교사 훈련을 실시한다. 3. 필요한 재정을 모금해서 선교지로 파송한다. 이 패러다임은 윌리암 케리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진화 발전되긴 했지만, 기본 컨셉에는 변화가 없다. 이 과정의 좋은 점을 안다. 훌륭한 인재를 잘 준비시켜, 어려운 선교지에서 빛과 소금이(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적 패러다임 안에서는 선교후보들이 선교에 접근도 못해보고 사라지게 하는 장애가 되는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을 떠 받치는 핵심 키워드는, 엘리트 인재, 시간, 재정, 지도자 등이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다. 오늘 같은 시대에 선교사가 꼭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모든 선교사가 리더를 지향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초대교회에는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선교사로 나갔다는 기록이 많지 않은가? 재정도 그렇다. 일정 액수(그것도 적지 않은)를 모금하지 않거나, 모금할 능력이 없으면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것일까? 현실적인 답은 “선교사가 될 수 없다”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나, 여기서는 공인된 단체의 적합한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얼마전 로잔에서 전세계 젊은 리더들 모임을 위한 사전 모임을 웹상에서 진행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동료 선교사의 전언(傳言)이다. 아프리카 헌신된 청년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와서 물어 왔단다.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대회측에서는, 그들에게 먼저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비디오를 보도록 소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단다. "우리 동네에서 인터넷 되는 곳까지 찾아가려면 몇 일을 가야하고, 가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제게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청년뿐만이 아니다. 재정이라는 문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보다 체념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선교사 공급지들은 바로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재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음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한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통적인 선교사 동원 패러다임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들 나라들의 경제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때까지 한 20년, 혹은 더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 한 아프리카 청년의 말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일까?

"긴 기간의 수준 높은 선교사 선발과정, 일정규모의 선교재

원 모집, 안정된 케어 시스템 구축 등" 이 모든 것은 의의를 달 수 없는 오랜기간을 거쳐 형성된 너무나 좋은 선교사 선발, 파송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 헌신된 선교사 후보들에게 접근하고,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래의 선교에 대한 힌트들

바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구조에 대한 고민을 안고, 다음의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계의 이야기가 많지만, 그들이 시대의 조류를 읽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높은 기술력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

먼저는 Air Asia(에어 아시아) 항공사 이야기다. 에어 아시아는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저가항공사다. 이른바 저가항공 시대를 연 주역이다. 이들의 비행기마다 이런 구호가 적혀 있다. "Now Everyone Can Fly!" 이들은 항공기로 여행하고 싶은, 그러나 아직 비싼 항공료를 낼수 없는 수많은 잠재적 고객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항공사의 핵심인 안전운항

은 굳건히 지키면서도, 일체의 서비스(무료 짐 운송, 식사제공, 영화감상 등)를 제거하고, 파격적인 가격의 항공권을 제공했다. 이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저가 항공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 Now Everyone Can Fly라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서도, 기존의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지켜내고, 평생 비행기를 타볼 수 없던 수 많은 사람들에게 비행기 탑승과 해외여행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에어아시아로 부터 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는 전통적인 선발, 훈련, 파송 구조의 선교 패러다임이 접근할 수 없는 수 많은 잠재적 선교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아이디어다. 선교사가 마땅이 가져야 할 성숙함, 거룩함이라는 높은 양질의 수준을 유지시키면서도, 그동안 선교에 동참할 수 없었던 잠재된 수많은 선교자원(선교후보, 후원그룹, 개별 후원자)에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에어 아시아의 슬로건을 조금 변형해서 인용한다면, “Now Everyone Can Do Mission!” 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일체의 서비스(무료 짐 운송, 식사제공, 영화 감상 등)는 무엇일까? 어떻게 양질의 선교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선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Everyone Can Do Mission)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좋은 예가 더 있다. 지금 케냐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M-pesa 머니송금 서비스다. 케냐에 잠시 살면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폭 넓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놀랍게 지켜본 적이 있다. 케냐 사람 대부분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럴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은행도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엠페사는 은행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송금할수 있게 해주었다. 이 서비스의 주체는 은행이 아니라, 통신회사다. 케냐의 사파리 닷컴과 영국의 보다폰은 케냐 국민 대부분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현금 송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케냐에서 엠페사 이전에는 사람들이 송금이 필요하면 목적지로 가는 버스 운전수에게 돈을 보내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민의 반이상이, 즉 2,300여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비스가 됐다. 케냐처럼 가난한 나라에서도 사업적으로 성공해 지금은 연간 3,800억의 수입을 올린다.[27]

중요한 점은 은행 구좌를 가질 수 없는 수천만명의 케냐 국민의 필요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케냐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 은행구좌를 갖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현존하는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결합해 휴대전화를

2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9/2016012902305.html?Dep0=twitter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머니송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에어 아시아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마음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케냐 국민 대부분의 어려움을 기술과 아이디로 극복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러나 꼭 송금서비스가 필요한 케냐 국민같은 수 많은 선교 자원들이 있다. 이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 더욱 많이 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제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케냐의 은행이 여전히 발전중에 있는 것처럼, 에어아시아 외의 기존항공사들이 고급서비스 기반의 항공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기존 선교 패러다임은 유용하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수십년 기다리리지 않고 지금 해결 할 수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일방통행 선교시대가 극복하려고 했던 난제들을 극복하면서 등장했던 것 처럼, 우리도 다방향 공유 선교시대에 맞게 지금의 난제들을 상대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장착한다면 선교계도 엠페사 서비스와 같은 획기적인 선교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Uber(우버)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공유 서비스가 있다. 택시와 서비스가 겹쳐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버라는 신개념 차량 공유 서비스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양질의 서비스와 직장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우버앱을 이용해서 택시처럼 차량을 부르고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지급도 스마트 폰을 이용해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 개념이다. 우버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이 가능한 사람과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택시업계가 가진 수 많은 한계를 극복했다. 정작 우버라는 회사는 택시용 차량을 한대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전세계 자가용을 잠재적인 우버택시로 만들어 버렸다. 우버는 공유(Share)와 네트워크(Network)라는 기술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본 통찰력,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융합시킨 통합적 사유의 산물이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하나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전세계 흩어진 선교 공급지와 수요지를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상상력의 등장을 기다린다.

Airbnb(에어 비앤비)라는 숙박공유 서비스도 비슷한 개념이다. 본인들은 단 한개의 호텔방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전세계 이용 가능한 모든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앱내에서 자신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 주민들중에 숙박용 방을 제공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방을 소개해 준다. 모든 연결은 역시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며, 방 제공자와 방을 필요로하는 여행객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한다. 방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경험과 평가가 앱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뢰있는 정보를 바탕으로한 숙박시설 선택이 가능해 진다.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호텔같은 숙박시설을 그냥 두면서도, 새로운 숙박 생태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세계를 아우르는 아이디어와 이를 연결하는 기술력, 그리고 값싼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와 자신의 방을 렌트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공급자의 등장을 간파한 통찰력이 어울려져 만들어낸 작품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공유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기업들의 등장은 시대적 흐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금의 시대는 공유와 나눔이 세련된 기술로 연결되어지는 네트워크를 요구한다. 이 통합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공간, 자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시대다.

3. 새로운 선교 생태계를 꿈꾼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
공유, 네트워크, 기술, 융합적 아이디어 등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령의 그릇에 담아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선교 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선교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수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 선교에 동참하고, 다시 교회들이 활력을 찾아 새로운 선교의 세계를 여는 것일까? 기울어가는 유럽과 북미의 세계선교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영웅적 지도자의 등장일까? 더 견실하고 많은 선교사를 선발, 훈련, 파송할 수 있는 메가(Mega) 파송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런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시대적 조류에 대한 통찰, 그 통찰이 가져다 줄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융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선교 생태계" 의 등장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교계보다 한발 앞서 Air Asia(에어아시아), Uber(우버), Airbnb(에어비앤비) 등의 기업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했다. 이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공유, 네트워크, 기술력, 융합적 아이디어, 새

로운 생태계" 다. 이들은 현존하는 모든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위에 융합적 아이디어로 기술력을 덧 입히고, 전체를 통합적으로 아울러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

엠페사처럼 은행(선교단체)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선교, 에어 아시아 처럼 잠재적 다수의 선교후보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다리 놓을 수 있는 선교, 우버나 에어비앤비 처럼 이미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공급과 수요를 다 활용해서(그것도 그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서) 그들을 연결해내는 선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사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는 "새로운 선교 생태계"를 꿈꾼다. 이미 기존의 생태계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150년전 허드슨 테일러는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당시 최고의 다국적 기업 동인도회사도 생각지 못한 것을 시작했다. 해안에서 내지(內地)로의 진출이다. 중국내지 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의 탄생이다. 그는 중국 내지의 수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당시 해안에 머물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중요한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성육신의 진리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땅에 아기로 오신 성육신의 진리는, 서양사람인

그가 중국인의 옷과 머리모양을 갖게 했다. 두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다. 사람들이 두려워 내지로 못 들어갈 때, 내지 선교회는 선교사들을 내지로 파송했다. 여자 싱글 선교사들도 내지로 파송했다. 혹독한 비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일을 중국 내지에 이루셨다. 세번째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의 지혜다.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하신 성령님은 그에게 새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다.

우리에게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었던 동일한 축복이 있다. 성육신의 진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지혜가 있다. 이 축복가운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 공유, 네트워크, 기술, 융합적 아이디어 등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령의 그릇에 담아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선교 생태계를 꿈 꿔야 한다. 무거운 하드웨어를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도 전세계 모든 하드웨어를 잠재적 선교 기반으로 만들어 버릴수 있는 새로운 선교 생태계를 꿈 꾼다. 그 수 많은 중간 과정과 중간 단계의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도, 선교를 필요로하는 수요지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공급지를 쉽고 안전하고 강력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선교계의 Airbnb의 등장을 기대한다.

이런 새 시대를 맞이하는 변화의 중심에 디아스포라 사역이

있다. 글로벌 시대가 낳은 선교적 자식이 “디아스포라 사역”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사역은 구 패러다임의 선교에서 신 패러다임의 선교로 전환 되는 데 유용한 수 많은DNA 를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일방통행에서 다방향으로의 선교, 일방적 시혜의 선교에서 공유의 선교로 변화와 전환을 촉진시켜 준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을 조금씩 목도하게 될 것이다.

III부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실제와 경험

개인적으로 첫번째 디아스포라 사역의 경험은 90년도 초반 중국의 북경에서였다. 5년 정도 중국유학을 하면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사역을 경험했다. 유학 시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지원과 격려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다. 두번째 디아스포라 사역의 경험은 사이판에서였다. 사이판은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작은 섬이다. 그곳에 특정기간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했고 다수의 디아스포라 화인교회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1년간 사역에 동참했다. 그후에 세번째로 일본의 삿포로와 도쿄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경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경험했다.

3부는 하나님이 한 개인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 주셨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실제 사역의 이야기들이다. 1,2 부에서 다뤘던 디아스포라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과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과 선교 생태계에 대한 생각들은, 3부에서 나눌 실제 이야기라는 지난 기간의 사실(fact)을 통과해서 나온 것들이고, 그렇게 나온 원리와 원칙들은 다시 실제 사역의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1. 사이판 사역(2002.3 – 2003.2)

사이판은 원래 미국령 자치섬이었다.(지금은 자치권이 없는 미국령이 되었다) 그래서 당시 사이판의 최저 임금은 미국본토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낮은 임금으로 생산된 제품은 미국 국내산으로 수입절차 없이 그대로 미국시장에 판매되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노동자들을 고용한 대규모 의류공장들이 사이판에 세워졌다. 그래서 한때 중국 노동자들이 3만여명 거주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을 대상으로7-10개의 중국교회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필자는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중국어는 가능했으나, 중국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 중국어는 어려웠다. 교회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종교언어를 중국어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중국교회 안에서 종교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사이판화인교회(Chinese Christian Church of Saipan 塞班華人基督教會)의 이만열 목사님을 통해 1년간 사이판화인교회에서 동역선교사로 사역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이판 화인교회에서의 1년의 사역기간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 평생 사이판 화인교회의 형제, 자매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들은 고달픈 의류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중국의 시골에서 어렵게 출국의 기회를 잡아 목돈을 마련하고자 홀몸으로 이국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이 자매들이었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도 드물었다. 매일 13시간씩 힘들게 노동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놀라운 사모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나왔다. 매일 말씀을 듣고 싶어해서 사이판 화인교회는 매일 집회가 있었다. 형제 자매들은 매일 밤 9:00-11:00까지 있는 집회에 13시간씩 하루 종일 일하고도 사모함으로 나와서 배웠다. 그들중 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눈빛은 빛나고 성경은 얼마나 읽고 또 읽었던지 손때가 가득했다.

밤 11시 집회가 끝나고 큰 포드 밴에 자매들을 가득 태우고 숙소로 돌아 가는 길엔 모두 함께 찬양을 불렀다. 캄캄한 차 안에서 10여명이 함께 부르는 찬양에는 하루 노동의 수고스러움, 집회의 감사함, 은혜의 충만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옆자리에 앉는 아내와 "천국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듣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다. 주중에 한, 두번은

아침에도 해변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것은 밤새워 일하는 자매들이 자신들은 밤 집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 아침에 집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생긴 집회였다. 아침에는 일반적으로 픽업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한 시간거리를 걸어서 그 강한 사이판의 햇살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변의 작은 정자에서 열리는 아침 집회는 아직도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으로 뇌리에 남아 있다.

강한 선교의 DNA(유전자)를 가진 교회

사이판 화인교회는 원래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의 교육관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었다. 선교에 뜻있는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몇 몇 분들이 몰려오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통역을 통해서 집회를 인도하셨다. 후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식으로 중국어 가능한 사역자를 초청했다. 나중에는 한인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아져서, 독립해서 사이판 화인교회가 되었다. 하나의 디아스포라 교회인 사이판 한인장로교회가 또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인 사이판 화인 교회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강한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발휘될 때, 그 교회 자체도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사이판 화인교회는 매일 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철저한 제자

훈련을 실시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은 거듭난 새생명의 삶을 살았다. 그들 안에는 결코 감출 수없는 새생명의 역사와 열매가 있었다. 사이판 화인교회는 10여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1,300여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들을 통해서 중국내에 50여개의 가정교회와 30여명의 전임사역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요르단(Jordan), 사이프러스(Cyprus)에 두개의 해외 디아스포라 화인교회가 개척되었다. 모두 다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귀국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이다.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잘 훈련된 디아스포라들은 강력한 선교의 유전자를 가지고, 어디에서든 새로운 생명의 교회로 꽃을 피웠다. 또한 사이판 화인교회의 싱가폴 목사님이셨던 팽목사님은 귀국자들을 돕기 위해 매년 2,3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귀국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양(Total & Long Care)를 했다. Total & Long Care는 귀국자들의 선교적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 이만열 목사님

사이판 화인교회의 중심에는 이만열(李滿悅) 선교사님이 계셨다. 이분은 1918년 한국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중국유학길에 올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녔다. 그래서 중국어를 중국인처럼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945년

한국이 해방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뒤늦은 4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셨다. 그리고 한국의 화교교회를 순회하며 전도개척사역을 하셨고 후에는 서울삼덕교회를 개척하셨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 홍콩에서 토마스 왕과 함께 일했고, 말씀 사역자로서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교회들을 도우셨다. 그리고 일흔이 넘은 나이에 사이판 화인교회의 청빙을 받아 사이판으로 오셔서 사역하셨다. 우리가 이만열 목사님과 1년간을 같이 지냈는데, 그때 이미 목사님은 84세이셨다.

이분은 사이판화인교회의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다. 이만열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셨다. 특히 이분의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랑은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매일 1,500–2,000여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분

이와 관련된 일화가 몇 가지 있다. 목사님이 한번은 10여년 만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화인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공항에 영접을 나온 교회 장로님을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자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목사님은 매일 당신의 이름을 부르

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잊겠냐고 하셨다. 또 다른 일화다. 아직 우리 가정이 사이판으로 들어가기 몇 년 전의 일이다. 이만열 목사님과 함께 나고야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선교하려고 단기선교를 다녀온적이 있다. 중국어가 가능한 중국유학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갔었다. 목사님은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신뒤 모든 팀원의 이름을 묻고 작은 메모지에 기록셨다. 그리고 2년쯤 지나서, 한국에 오셨길래, 단기선교 갔던 몇몇 팀원들과 인사드리러 찾아가 뵈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내 이름을 포함해 팀원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물으셨다. 그리고는 그날 안 온 팀원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의 안부도 물으셨다. 다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쭤보았다. 그때 목사님 연세가 이미 80대 초반이셨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매일 기도해요. 매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후에 1년간 사이판에서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매일 새벽 4시에 홀로 일어나 2시간 정도 기도하시는데, 특이한 점이 100% 타인을 위한 중보기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삼덕교회 교인들, 가족들, 그리고 그후 목회자, 선교사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1,500-2,000여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우며,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중보 기도하셨다. 매일 매일 이

기도를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하셨다. 한번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셨는지요?” 여쭤 보았다. 목사님은 요한복음10:3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목자로서 어떻께 기도해야하는가?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난 2015년 98세로 소천하시기까지 그렇게 50여년을 기도하신 것이다.

또한 매일 오전, 오후에 규칙적으로 성경을 상고하셨다. 그분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하셨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증명하고 해석하는 파워풀한 말씀전도자이자 설교가셨다. 성령의 조명으로 새로운 진리를 찾는 날은 어린아이 처럼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기뻐하셨다. 또한 전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선한 목자이셨다. 사이판에 중국인들이 줄어든 다음 목사님은 87세에 한국으로 오셔서 중국인 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교와 한국에 신생한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에서 말씀사역을 하시며 남은 생을 보내셨다. 목사님과는 사이판에서 1년 정도 같이 생활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찾아 뵈었고, 필자가 사역한 일본의 삿포로와 동경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마음껏 사용하신 이만열 목사님은 본인 자신이 디아스포라이셨으며, 평생에 많은 중국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은 주의 종이셨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이판 화인교회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사역은 디아스포라가 가진 선교적 가능성, Total & Long Care의 중요성, 그리고 디아스포라 사역에는 추수의 시기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이판에서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개인적인 경험은 후에 장기적으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기술적 밑거름이 되었다.

2. 삿포로 사역(2004.5 – 2008.9)

2004년 5월 삿포로 국제교회의 청빙으로 중국인 예배부 사역자로 부임했다. 삿포로 국제교회는 OMF가 개척하여 10여년이 된 교회였다. 당시 이수구 선교사님이 목회하셨고 다수의 일본인과 한국인 영어권 신도들이 있었고, 이미 10여명의 중국인들이 출석중이었다. 우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목회사역을 시작했다.

예수님 안에서 고아들이 진정한 가족을 만나다.

당시 두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한 그룹은 일본에서 "잔류고아(殘留孤兒)"라[28] 불리는 분들이었다. 이 분들은 일본이 패전한 후 만주지역에 남겨져 있던 일본인들의

28) 잔류고아(殘留孤兒)는 일본이 2차대전에서 급작스럽게 패망하면서 남겨진 구만주국 지역의 일본인 후손들로, 잔류고아와 잔류부인(殘留婦人)으로 나눠진다. 이들중 대부분이 잔류고아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일본인이나, 문화 언어적으로는 중국인이다. 일본의 80년초부터 이들의 일본국적을 인정하고 입국을 허가했는데, 현재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와 거주하는 잔류고아와 가족은 239,789명(2011년 통계)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대가족을 이루고 있으면 대부분 일본 문화와 경제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예들로 오랜 중국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귀국했는데, 그중 다수가 홋카이도 삿포로에 정착했다. 잔류고아는 일본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전쟁의 아픈 기억이었다. 중국에게는 적국의 후손, 일본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였다. 그래서 "전쟁고아"들은 그 어디에도 돌아갈 집과 고향이 없었다. 이들은 중국, 일본 모든 곳에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보냈다. 그들의 삶과 가정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환영하셨다. 이들은 신앙을 통해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잔류고아 출신과 그들의 가족들이 교회에 대거 들어왔고 이들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가족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다.

청년 유학생 사역을 생각하고 들어갔던 삿포로에서, 이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이분들이 가진 따뜻함, 중국 시골출신의 순박함, 그리고 이런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다. 이 분은 대부분의 잔류고아들과는 달리 일본어를 빨리 배우셨고 잘 하셨다. 그리고 삿포로에서 전쟁 때 헤어졌던 친어머니와 남동생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남동생이 절대 어머니를 못 만나게 했다. 동생

본인도 만나주지를 않았다. 혹시 재산권 때문에 그런가 해서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친어머니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 천 할머니는 한 섞인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아픈 이야기를 하셨다. 이 분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나셨다. 전쟁고아 출신 분들은 저마다 전쟁과 고아의 아픔, 서러움, 상처를 안고 살아 간다. 그들이 살아가기에 일본은 너무나 비정한 땅이다. 그런 곳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지셨고,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원을 받았다.

기적같은 일들을 경험하다

"리오우" 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이분은 엄청난 애연가(愛煙家)였다. 소년 시절 몰래 피기 시작한 잎담배로 시작해 그때까지 흡연을 하셨으니, 한 50여년의 흡연가였다. 그런 분이 아들내외의 권유로 교회 수양회에 참석했고,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강사 목사님과 함께 금연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자 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견딜수 없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더 이상 담배를 필 수가 없었다. 체질이 바뀐 것이다. 수양회에 오던 마이크로 버스에서 이분의 차내 흡연으로 두통을 안고 왔던 형제, 자매들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분의 신기한 변화를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 후에 리오우 할아

버지는 믿지 않던 몇몇 자녀들은 물론 둘째 사위를 믿음의 길로 인도했다. 리오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믿음생활은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

뇌사 상태로 응급실에 계신 천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심방을 가서 처음 뵙고 기도하였는데, 다음 주에 걸어서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마할아버지께서는 심한 천식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눕지 못하고 앉아서 주무셨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누워서 주무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외에도 왕할머니 가정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구원 받고, 세례받는 축복 가득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다. 왕할머니는 지금도 드러내지 않고 많은 유학생들을 돕고, 오가는 선교사들을 돕는 등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신다.

유학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찾은 또 다른 그룹은 유학생 그룹이었다. 일본어 연수생으로부터 시작해 박사과정의 학생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최소 6년에서 10년의 긴 시간들을 보내는데 충분히 제자훈련이 가능한 시간이다. 이들중 대부분이 학위를 마치고 중국과 대만으로 돌아가 학교와 연구소등에서 교수가 되었다. 그중 리형제는 성탄

절 파티를 계기로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다. 졸업 후 사역자로 헌신했고, 중국에 다시 돌아가 사역과 신학훈련을 받아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리형제의 어머니가 친척방문으로 삿포로에 와서 6개월 정도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셨다. 짧은 6개월이었지만 세례도 받으셨다. 그리고 신앙훈련을 받으신 뒤, 삿포로 국제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 가운데 다시 복음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다.

백혈병에서 나음 받은 소년

유학생중에는 북경에서 온 의사부부가 있었다. 형제는 박사를 마치고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부부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주를 계속 고열로 시달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으로 심방갔다.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다. 병원 1층에서 아이의 엄마를 만났는데 검사 결과를 이야기 하며 펑펑 울었다. 백혈병이었다. 병실 앞 휴게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야 하는데, 청천벽락 같은 소식을 접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이 없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문이 안 떨어졌다. 내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그런지, 진실한 말같지가 않았다. 살아오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믿음 없는 말, 세상적인 말로 위로를 할 수 도 없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분들께 드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낫는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 드리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교인이 그들과 수도 없이 함께 기도하고, 수시로 병문안 가고, 식사와 간식을 해서 병원으로 날랐다. 고열로 여러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1년여만에, 마침내 아이의 병은 기적처럼 완치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함께 함을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셨다.

일본인들, 선교사역의 강한 동역자들이 되다

삿포로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일본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주변에 신실한 다수의 일본인 크리스천들

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놀랍게도 중국인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분이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키상 부부다. 이분들은 한 선교모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중국인 선교에 대한 메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중국에 갈 계획도, 그럴 일도 없고, 중국말은 한 마디도 못하니, 전혀 중국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두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키상 부부는 삿포로에 중국인들이 유학오는 것을 감지했고, 이들이 일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부부가 발 벗고 나서 중국유학생들을 도왔다. 기회되는 대로 자신들에게 부탁하는 거의 모든 중국학생들의 신원보증을 서 주었다. 또한 자비로 밴을 구입해서 이사하는 가난한 중국유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이삿짐 운송을 수도 없이 해주었다. 중국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밤12시에도 뛰어나와 병원으로 경찰서로 동분서주했던 부부다. 그리고 사사키상 부부는 한 달에 한번 자기 집에 중국인들을 초청해 일본식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간증집회를 열었다. 이 일을 무려 10여년 넘게 지속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중국인들의 이분들에게 도움을 얻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왔다. 하나님은 중국말 한 마디도 못하는 이 일본인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박사과정에 있

던 중국인 부부는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헌신해,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신실하게 미국 화인교회를 섬기고 있다. 일본인 형제 자매들의 섬김과 희생은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따뜻한 봄 바람이었다.

삿포로 국제교회는 이수구 선교사님의 리더쉽 아래에서 강력한 디아스포라 사역을 전개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후에는 디아스포라 한국인, 디아스포라 영어권(English Speaker) 사역이 전개되었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기존 일본인 그룹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많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교를 경험하면서 성장했다.

홋카이도 중국인 수양회 이야기

삿포로에서의 사역에 중심에는 매년 8월에 열리는 홋카이도 중국인 수양회가 있었다. 수양회에는 늘 성령의 역사, 회개와 죄사함, 거듭남과 헌신의 일들이 일어났다. 수양회의 은혜가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자, 형제 자매들 중에는 수양회 참석을 목적으로 중국의 가족들을 일본에 초청했다. 수양회 두달전에 초청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안착시킨 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고, 그 후에는 세례와 기본적

인 훈련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타는 영향력의 파급성은 놀라웠다. 그리고 국내의 가족까지는 아니지만, 해마다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수양회에 초청하고자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갖 사랑과 섬김으로 정성을 쏟고 기도를 쌓은후 일년에 한번 뿐인 수양회에 정중하게 초청했다. 수양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신앙과 전도에 새로운 도전을 많이 주었다.

홋카이도 중국인 수양회의 아이들 프로그램은 늘 일본인 자원봉사자 형제, 자매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본어를 중국어보다 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인 형제, 자매들의 섬김은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인 자원봉사 형제, 자매들은 자비로 수양회 경비를 내고 와서, 삼일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겼다. 그 더운날 비지땀을 흘리며, 중국인의 아이들을 안고 애쓰는 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느꼈다. 한번은 나이가 60이 넘으신 일본인 자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국아이 한명을 하루 종일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보았다.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이토록 희생하며 중국인을 섬기게 하였을까? 바로 주님의 사랑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국가, 민족을 넘어서 전진했다. 막힌 담을 헐고,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

다리를 놓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사역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본인이 선교지 언어를 못해도, 선교지로 못 나가도, 바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준다

디아스포라 유학생 사역의 기쁨

필자는 디아스포라 유학생 신분으로 4년6개월을 중국 북경에서 보낸 적이 있다. 그곳에서 만났던 디아스포라 교회, 친구들은 평생 가는 동역자들이 되었다. 그때는 다들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중년의 사업가, 학자, 사역자들이 되었다. 이들과는 지금도 교제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다. 중국이라는 디아스포라 지역이 우리 모두에게 준 만남의 축복이었다. 일본에 유학온 중국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유학시절의 만남, 축복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하곤 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범한 학생으로 만나지만, 앞으로 평생토록 함께 가는 주님 안에서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삿포로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10여년의 세월이 지나, 국내외에서 저마다 사업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연구소 연구원이 되고, 헌신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다. 저 마다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중국 전역과 일본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 이들 중 몇 몇 사람들이 동경의 교회에서 만나 찍은 사진을 보고 감

격했다. 이제는 저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있는데, 주 안에서 동역자로 만나 교제하고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은 정말 보람되고 기쁜 일이다.

삿포로를 떠나다

삿포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요, 역사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웃고, 울며, 아파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이 자라는 것을 함께 축복했다. 전후좌우를 보아도 다 감사한 것 뿐이었다. 무엇보다 선교사로서 선교 대상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며,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들 한명 한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셨다. 내게 선교는 그런 사실에 눈 뜨고, 그 눈을 뜨고 본 사실을 삶으로 인정해 내는 것이었다.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있었지만 삿포로 국제교회의 중국어 예배부는 중심 리더들이 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국제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2008년 9월, 4년4개월간의 첫 텀 사역을 마치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파송을 받고 삿포로를 떠났다. 일본 전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바라보며, 그 부르심을 좇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3. 동경 사역(2009.9-2015.6)

1) 동경 닛포리 국제교회 (TNIC: Tokyo Nippori International Church)의 시작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2009년 9월에 새로운 사역지 도쿄에 도착했다. 지인이 거의 없는 대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달랑 여행가방 두개를 들고 도쿄 '닛포리'라는 곳에 집을 찾았다. 간신히 소개받아 보증인을 구해 집을 계약하고 여행 가방 하나를 식탁 삼아 생활을 시작했다.

아내와 나는 삿포로 시절 일본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일본인 스텝들과 같이 일을 했기에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며 배워보지 못했던 일본어가 늘 아쉬웠다. 그래서 집에서 가깝고 선교사 할인 혜택이 있는 일본어 학원을 찾아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일본어 학교 학생의 60-70%가 중국인이었다. 주변에 온통 디아스포라 중국인 유학생들이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눴다.

집에서 시작된 교회개척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2010년 1월 10일에 닛포리 국제 교회가 시작되었다. 주택가 한켠의 작은 방안에서 작은 무리가 모였다. 일본 특유의 좁은 공간에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 작은 공간이 집이요, 손님들의 게스트 하우스요, 단기팀 사역지요, 사무실이요, 예배당이었다.

이 곳에 많은 중국인들이 들렀다. 한 해는 계산을 해보니 1년간 500여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았다. 밥과 함께 증거되는 복음이었다. 우리는 이 집안의 예배장소에서 1년8개월간 예배를 드렸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천사들을 만났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한인 크리스찬 가정을 비롯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사랑하여 섬기고자 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 이분들은 중보 기도로 함께 할뿐만 아니라 쌀이나 빵, 김치같은 식료품이나 부족한 물품이나 식기등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 규모가 큰 행사시에는 부엌 봉사나 구매봉사도 기쁘게 해주셨다. 이들 역시 오래된 한인 디아스포라들로 선교에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에서 부터 중국인 유학생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이 일에 증인된 기쁨을 함께 누렸다.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 사역적인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우리 사역의 대상은 대부분이 한번도 교회를 가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배당 보다는 집이 그들에게 더 쉽게 다가 갈 수 있다.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말하는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다. 선교전략상 선교대상을 고려할 때 좋은 선택인 것이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그들의 귀국후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데,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귀국후 가정교회나 삼자교회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곳의 교회는 일본의 교회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모임'이라는 본질적인 메세지를 주려면 가정에서의 모임이 더 적합했다. 가정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가정교회의 전통이 있는 곳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며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랬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개척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한 형제는 우리와 5개월간 한 집에서 지내며 닛포리 국제 교회에서 첫 세례를 받았다. 이형제는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깊은 감명을 받고 헌신하여 지금은 국내로 돌아가 풀타임 사역자로 훈련받고 있다.

교회의 예배당 집밖으로 나가다

가정에서 닛포리 국제교회가 시작되고 1년8개월쯤 지났을 때다. 아내의 몸에 이상이 왔다. 아내는 몹시 아팠고, 우리는 더이상 가정에서의 예배, 집에서의 교회개척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예배 모임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은 우리에겐 아픔이었다.

막상 예배 장소를 찾으려 하니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 떠오르는 곳이 있었다. 근처 닛포리역을 오가며 보았던 하베스트 라는 한인교회로 일반 빌딩의 4층을 렌트한 교회였다. 방문해 본적이 한 번도 없었고, 교회의 목사님이나 기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였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주일에 3-4시간만이라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부탁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데, 일이 급하고 꼭 필요하니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졌다. 하베스트교회 밖에 안내되어 있는 예배 스케줄을 보니 예배가 특별히 많은 교회였다. 매일 한번의 예배가 있고, 주일에는 세번의 예배가 있었다. 보통 일본의 한인교회들이 주일에 한, 두번의 예배가 전부인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예배 스케줄을 보고 우리에게 빌려주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왕에 왔는데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베스트교회는 미국에서온 한인교포 목사님(류 David)이

개척한 교회로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매우 활력있는 개척 7년차 교회였다. 목사님과 스텝들은 매우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우리의 사정을 다 듣고는 흔쾌히 예배당을 Share하겠다고 했다. 본인들도 동경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을 보고 사역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동참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다. 뜻하지 않은 환대에 마음을 놓으려할 때, David목사님이 당분간은 교회를 함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하베스트 교회가 곧 예배당 건축에 들어가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셨다. 첫째는 본인들이 새 건물로 이사갈 때 같이가기 원하면, 새 예배당을 같이 쓰자고 하셨다. 둘째는 현재 하베스트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을 우리 교회가 계속 렌트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현재 예배당으로 셋팅 된 교회 인테리어나 기본적인 도구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셨다. 사실 하베스트교회가 쓰는 장소는 매우 매력적인 장소였다. 닛포리역에서 1분거리, 바로 앞에 두 개의 일본어 학교(학생의60% 정도가 중국인)가 있는 점, 독자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점들은 큰 매력이었다. 그러나 매달 렌트비와 관리비, 공과금을 포함하면 40여만엔이 필요했다. 겨우 13명정도의 학생이 중심인 닛포리 국제교회가 감당하기엔 불가능한 현실로 보였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직접 렌트는 아니라고 생각하

고, 하베스트교회가 이사가기 전까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점만으로도 감사하며 돌아왔다.

예배장소를 찾은 후에 형제, 자매들에게 자초지종을 알리고 모두 함께 교회를 방문했다. 전철역이 가까워 좋아했다. 그날 저녁에 교회의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제는 오늘 장소가 무척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같은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단독으로 얻어보면 어떻겠냐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 형제는 결혼을 했는데 조금이지만 그 동안 부인과 함께 모았던 것을 새 예배당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고, 앞으로도 열심으로 감당할테니 목사님도 일년정도 힘을 합쳐줄 다른 교회나 사람들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다. 1년 안에 교회가 자립하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집을 교회 장소를 쓸 때와는 뭔가 다른 헌신이 그들 가운데서 보여지기 시작했다. 주인의식이 생긴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 먼저 이런 의사표현을 하고 의욕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도전이 되었다.

형제의 전화로 우리 부부는 예배당을 단독으로 얻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기도를 추가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분명 내 사정을 모르실텐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했다. "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내게는 심상치 않게 들렸다. 나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설교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된 일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새로 들어가게 된 예배장소에 대해 목사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미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라,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드물게 한 마디 툭 던지셨다. "얻으세요!" 이 한마디가 강하게 와 닿았다. 솔직히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다.

닛포리 국제교회 새로운 궤도에 오르다.

'가정교회'라는 선교적 방향을 잡고 나가는 우리에게 예배당을 얻는 문제, 심지어 많은 렌트비가 드는 장소를 얻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다. 지금 같은 경제위기의 시대에 적절한 전략인가? 가정교회 추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 외부의 도움으로 예배당을 얻는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자발성, 독립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대화하며 좀 더 넓고 긴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새로운 예배당을 얻는 문제는 이미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토요일 오후, 새벽예배에 나가는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혹시 새로운 장소 단독으로 얻는 것 결정하셨나요?" 나는 주일에 교인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말씀 드렸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얻게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새 예배당을 얻으시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3년간 예배당 렌트비의 20%(10%는 교회에서, 10%는 장로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를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후원이나 지원에 대한 부탁 말씀을 한 번도 드린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일해주신 것이다. 이분들의 20% 지원 결정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고무시켰고, 귀한 종잣돈이 되었다.

2011년 10월9일 주일, 전체회의를 거쳐서 예배당의 단독 렌트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런 가운데 친분이 있는 한인교회 장로님, 권사님 내외분이 10%를 동참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어떤 형제 부부가 10% 동참을 선언했다. 우리 부부도 10% 동참하고, 한국의 집사님 가정 역시 10%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60%가 해결되었다. 우리가 제대로 주목하자 ,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가셨다.

10월14일, 오랜만에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왔다. 점심식사나 한 번 하자는 전화였다. 점심약속에는 그분과 친구분이신 일본어학원 이사장님이 나오셨다.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셨다. 처음 동경에 와서 아내와 내가 몇 개월간 다녔던 일본어 학원의 이사장님이셨다. 이사장님은 기독교인이시고, 선교사들에게는 학비의 50%를 감면해 주었다. 이 일본어 학원에서 우리 교인의 대부분을 전도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얻으려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사장님이 우리가 교회를 얻게 된 장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마침 식사 장소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식사후 바로 방문했다. 그 장소를 여기저기 살펴보던 이사장님은 하루정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전화하자고 하셨다.

다음날 전화가 왔다. 이사장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우리가 얻으려는 장소를 학원에서 주중에 교실로 같이 사용하고, 교실 사용료로 교회 렌트에 부족한 부분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을까? 나머지 40%의 렌트비가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매일 중국학생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수업을 받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많은 중국인 학생들을 접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 절로 나왔다.

재정후원에 관한 요청서를 써서 보내기도 전에 100%가 채워진 것이다. 장소 얘기가 나온지 3주만이다. 내가 주도적으

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도와 달라고 사람을 설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주관하셔서 3주만에 끝을 내셨다.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믿음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만나게 할 사람, 부르실 사람, 양육하실 사람, 이곳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실 사람이 있었던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이 예배 장소가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동경을 비롯한 일본의 다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해 허락하신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보잘것 없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심을 깨달았을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새예배당을 얻고 전도집회가(2012년, 5월8-9일) 열렸다. 첫째날 90명, 둘째날 190명이 참석했다. 예상 못했던 일이었다. 발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찼다. 전도대회 마지막 날 "여러분 가운데 일본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과 부담이 있는 분들은 오늘 집회가 끝난 후에 남아 주십시오!"

집회가 끝나고 50여명의 사람들이 남았다. 우리는 함께 기도

하고 토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리고 매월 한번 동경과 인근의 화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동경 화인 연합기도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도모임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세련미도 부족하고, 장소도 초라했다. 모이는 사람이 적을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일본의 화인들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제했다. 바쁘고 힘든 동경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오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2) 연합전도대회와 동경화인 크리스천 센타 (JCC: Japan Chinese Christian Center)의 탄생

연합기도모임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각자 섬기는 교회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는 기도모임에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있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큰 기쁨이요 은혜였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실천했다. 그 중 하나가 불신자들을 향한 '연합전도대회'였다

연합기도 모임, 전도대회가 시작되다

연합전도대회는 연합기도모임이 시작된지 4개월쯤 되었을 때, 한 형제가 제안했다. 사모하며 기다렸던 기도모임의 열매였다. 교회 밖에 있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전체 중국인의 99.8%다.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다. 기존의 멤버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잃은 양 한 마리에게 온통 마음을 뺏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행위요, 우리에게 화(禍)가 미칠 죄였던 것이다(고전9:16).

연합전도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7개월간의 준비에 들어갔다. 회의를 해야 하는 주일 저녁은 다들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모임은 웃음이 있었고 유모와 위트가 넘쳤다. 모임을 하고 나면, 모임 전보다 훨씬 힘을 얻어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5월, 첫 연합전도대회가 열렸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여개의 교회에서 온 150여명의 무명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나타나 봉사의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당일 개회시간이되자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비를 뚫고 물 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대회를 위해 특별히 빌렸던 1,000여명 수용 가능한 예배당이 가득 찼다. 이틀간 3차례의 집회에 2,910명이 참석하고, 그중 240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했다. 일본 땅

의 영적 필요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100여명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헌신을 고백했다. 대회에 참석했던 형제, 자매들은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다. 이 척박한 일본 땅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본 화인의 하나님 이시구나! 1,000여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는 천상을 거니는 것 같았다.

전도대회는 일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회에 참석한 소수의 일본인들이 중국어로 진행된 그리고 일본어로 동시통역된 메세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왔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중국인들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반응, 그것은 일본 땅에서 매우 드문 현상이다. 하나님은 중국인들이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는 장점을 쓰셔서 일본인 선교에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다. 주님께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영적 소원과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부유한 자들에게 다가 가셨다.

연합 전도대회는 어느 한 교회나 한 개인의 리더쉽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즐거이 헌신한 결과였다. 전도대회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온 개인의 부르심과 부담(감동)이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이

일에 부르셨다는 소명을 확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개인의 시간적 헌신이다.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채워지면 그 누구든 봉사자로서 환영 받았다. 그가 가진 교회의 직분, 지위, 신앙의 년수(年壽)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은사를 따라 쓰임 받았다. 이 원칙은 후에 연합사역의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재정도 비슷한 원칙이었다.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헌금도 있었지만, 대회에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일본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의 개인 헌금으로 채워졌다. 우리 가운데 부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큰 헌금이 재정을 채우지 않았다.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작은 헌금들이 모여 큰 일을 이루었다. 마치 오병이어 처럼 작은 헌금과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日本華人基督徒中心, JCC가 탄생하다.

이렇게 시작된 전도대회는 그후 매년 지속적으로 열려, 지난 3년간 총 4번의 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총 6,757명이 참석하고, 542명이 결신자가 나왔다. 1회 연합전도대회가 끝나고 감사하는 모임이 있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서 자연

스럽게 모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함께 연합전도대회를 섬겼던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120만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다.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소박한 단체를 구성해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日本華人基督徒中心, JCC(Japan Chinese Christiaon Center, 이하 JCC로 약칭 한다)였다

JCC는 어느 한 개인의 비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디이스포라 중국인의 상황에 따른 강렬한 필요가 JCC라는 모임을 탄생시켰다. 120만명에 이르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영적인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갈급함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 미약했다. JCC는 그런 시대적 부르심에 대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JCC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대한 자발적 응답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상명하달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JCC는 개인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희생(특히 시간)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누구나 은사를 따라 어떤 봉사든 섬길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감동과 헌신이 다해서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면, 이것도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다.

JCC는 조직이나 리더가 중요하지 않다. 기존의 조직처럼 권위 중심이나 강제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플랫폼(Platform)이 되어 평신도 그리스천 운동(movement)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무형의 조직에 가깝다. 한 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그 분의 뜻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영광 받으신다.

3) JCC 사역 소개

JCC모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일본을 위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화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해서 매월 함께 기도한다. 일본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곳곳에 자리잡은 화인교회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각교회에 연락해서 기도제목을 묻고, 그들의 기도제목을 우리의 기도제목으로 삼아 기도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 흩어져 있는 화인들, 특히 크리스천 화인들에 대한 이해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 일본의 화인들에게 필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필요한 마음, 사람, 재정을 공급해 주셨다.

JCC 훈련센타가 시작되다

그 결과 연합전도대회가 지속해서 열렸다. 그리고 전도대회를 통해 헌신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 2014년 10월11일에 JCC Training Center(이하 T.C로 약칭)가 시작되었다. TC 훈련은 평신도 제자훈련이다. 개인 신앙 성장으로 시작해서, 소그룹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C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바쁜 생활을 고려해, 1년 반의 과정으로, 두달에 한 번 꼴로 토요일 전체 하루 시간을 이용해서 훈련한다. 하루에 한 과목 전체를 마치는 개념이며, 매번 훈련에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80여명에 이르는 형제자매들이 동경과 인근의 지역에서 사모함으로 와서 참석했다. 현재 1년반의 기간동안, 9차까지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총인원 600여명이 참여했다.[29] T.C는 미국의 하이와이 샤오위엔 (海外校園 Oversea Campus)과 협력 관계를 맺고 강사지원을 받았다. O.C의 헌신과 지원은 일본 화인 사역에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다.

선교 운동이 시작되다

29) JCC Training Center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 정보는 여기에 있다. http://tokyo-jcc.com/everyday/

선교운동도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일본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열방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우리에게 열방은 먼저는 주변의 화인동포들이요, 두번째는 일본인들이요, 세번째는 열방에 흩어진 복음이 필요한 세계 모든 나라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JCC 가 생기는 수입의 1/10을 지속적으로 일본선교에 선교헌금하고 있다. 그동안 2011에 있었던 3.11 대지진 피해지역을 돕는 일, 일본교회를 돕는 일, 일본 홈리스 사역 등에 헌금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한 간접적인 선교외에, 형제 자매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선교를 추진했다. 단기선교팀 사역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충분히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영적,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잠재적 능력을 선교로 연결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고, 태국국경지역 화인난민촌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7개 교회, 4개국, 16명의 형제, 자매들이 8주의 단기선교 훈련을 받고, 2014년1월5일부터 5박6일간의 선교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시 단기 선교 백서를 출간해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30] 단기선교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장기선교를 향한 첫 걸음이 되었다. 앞

30) 단기선교 보고서(백서)가 출판되었다. 백서의PDF 파일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http://www.tokyo-jcc.com/images/RThailand-2014Web.pdf

으로도 지속적인 장단기 선교활동을 통해 선교하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이들의 필요, 기도제목, 삶에 대한 정보를 자체 웹(tokyo-jcc.com)을 만들어 공유했다. 모든 집회, 훈련, 모임에 대한 보고, 사진, 간증 등을 올렸다. 연합전도대회에 관련된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내역도 공개했다. 특히, 일본에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에 대한 기본정보(위치, 연락처 등)를 알기쉽게 지도 상에 표시함으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갈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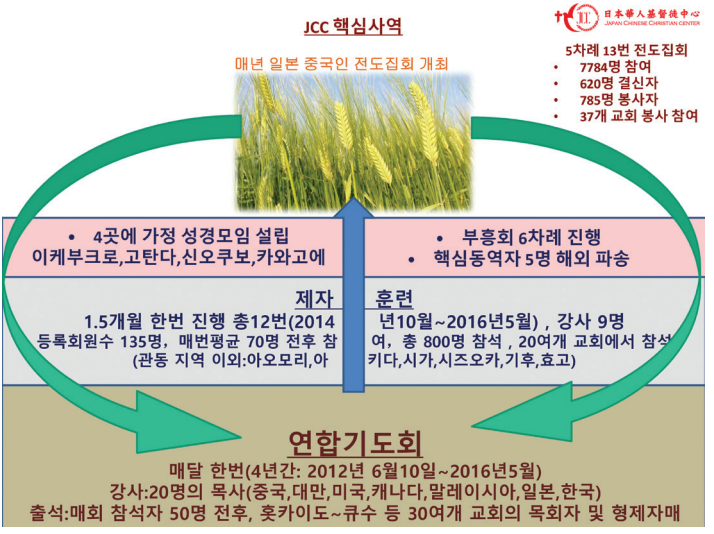
그 외에 일본지역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고 있다. 일본에 사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매일 수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으며 살아간다. 갑작스로운 병, 사고,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장애, 직장문제, 언어 문화상의 어려움 등등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다. 우리는 임종직전의 사람들을 방문한다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다거나 하는 일들을 돕기도 했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일본외의 지역에서는 많은 경우 지역교회들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은 교회가 매우 적고 미약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 회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JCC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 봉사적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JCC- 일본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JCC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의 그리스도인들을 연결하는 다리(Bridge)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중국내 교회들, 북미의 화인교회들이 일본선교에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JCC는 그들의 다리가 되어 그들이 일본선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수의 중국인 선교사가 일본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일본선교를 일구었던 일세대(一世代)선교사들은 북미, 유럽 출신의 선교사들이었다. 근래에 와서는 이세대 (二世代)선교사로서는 한국 출신 선교사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일본선교는 삼세대 선교의 등장을 기다리는데, 삼세대(三世代) 선교사는 중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될 것이다. 중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일본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또한 이 일은 일본선교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는 일이 될 것이다. JCC는 이들의 다리와 창구(窓口)가 되어 이 일을 도울 것이다.

이 JCC의 다리역할은 해외의 자원을 일본으로 유입시키는 일만을 하지 않는다. 동시에 일본의 선교자원을 해외로 연결하는 다리역활도 할 것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수 많은 인적, 재정적 선교 자원이 있다. 이를 동원하고 동력화하여 세계선교로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하다. JCC는 외부의 선교 자원을 일본으로, 동시에 일본의 자원을 전세계로 연결하는 BOD(Bridge Of Diaspora)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4) JCC 존재 목적, VISION 그리고 한계와 도전

JCC사역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고, 선교사

를 파송하고 세계선교에 동참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세가지 목표에 맞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JCC 존재목적과 VISION

첫째는, 생명(生命)을 살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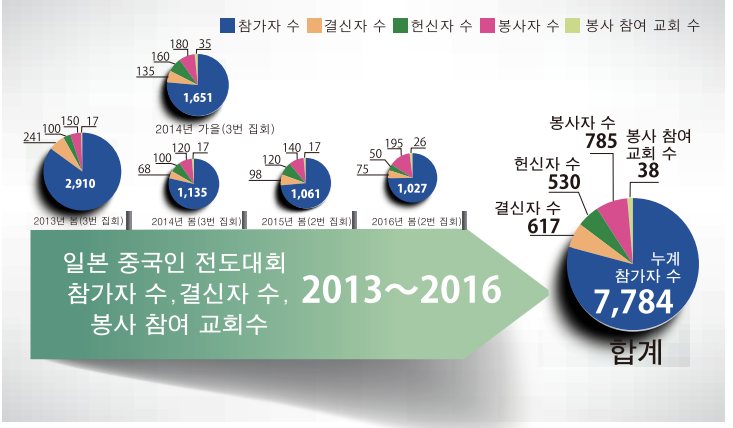
전도대회와 같은 큰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목자되신 예수님의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현재 다섯번의 대회를 통해 7,784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전체 120 만명의 0.65%에 불과하다. 더 많은 기회를 사용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 그동안 있었던 전도대회에 대한 통계는 아래 나오는 표와 같다.

작은 집회들도 열어가야 한다. 형제, 자매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접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작은 성경공

31) 3%를 목표로 잡는 이유는, 그정도 되어야 자립적인 복음전파가 가능한 일본 화인기독교 공동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 모임들이 생겨나야 한다. 400개의 성경공부 모임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다. 일본 전국에 흩어진 400여개의 성경공부모임에서 주변의 중국인들을 초청하여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를 기도하고 있다. 소규모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최소한 전체 화인인구의 3%인[31] 36,000명이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독교 공동체를 체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감사하게도 이미 성경공부 모임은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동경을 필두로 전국에 7-8개의 작은 성경공부 모임들이 시작되었다. 이 모임들은 대부분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시작한다. 그리고 JCC는 기도와 가능한 방법으로 응원하고 지원한다.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는 중국유학생이 있다. 그리고 외



(2013-2015 전도대회 연도별 통계- 봉사 참여 교회수, 봉사자 수, 결신자 수, 헌신자수 -JCC제공)

국유학생중에 가장 많은 유학생은 중국인들이다. 그러나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는 중국어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모임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이도 거의 없다. 1,245개에 이르는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복음의 미개척지다. 최근 OC와 협력 사역으로 OC 파송 선교사님과 함께 캠퍼스 중국어 성경반 개척을 시작했다. 작은 시작이지만, 접근이 가능한 캠퍼스들을 돌아보고, 캠퍼스 사역에 관심있고 부르심 있는 형제, 자매들을 모아 기도하고,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 2016년 안에 최소한 한 캠퍼스에서 부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한다.

둘째는, 생명(生命)이 자라나게 돕는 것이다.

생명은 자란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생명을 더욱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이다. 신앙과 삶의 성장이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수분, 햇빛이 잘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있다. 먼저는 TC(JCC Training Center) 를 통해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성장에 필요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TC 는 1년반에서 2년간의 과정으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는 신학과정이다. TC를 마친 사람들 가운

데, 풀타임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꿈꾸는 신학과정은 일본이라는 현장과 자신의 직업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신학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신학교는 "동아시아 신학 아카데미"라 불리울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신학 아카데미는 800명의 훈련된 소그룹 리더 양성과 400개 교회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생명과 삶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긴급한 것 중 하나는 2세들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에서 성장한 많은 화인들의 자녀는 중국어를 잘 못한다. 중국어를 못할 뿐아니라,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린다. 그것은 일본에서 그들이 받는 교육 때문이다. 일본은 일본이라는 색깔이 강하고 매우 폐쇄적인 사회이기에, 외국인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장점을 융합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세계 화교들의 가장 큰 경쟁력인 영어구사능력이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많이 떨어진다. 일본에서 제대로된 중국어 교육, 영어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한 "동아시아 국제 아카데미(East Asia International Academy)"를 꿈꾼다. 이 학교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동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아니라 동아시아 리더쉽을 가지고 전세계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자 한다. 쉽게 생각하면, 이 학교를 졸업하면 신앙적 정체성, 중국인으로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과 능력(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동아시아 정체성과 리더쉽을 갖추고 전세계를 섬길 수 있게하는 인재양성의 모판이 될 것이다. 이 동아시아 국제 아카데미와 관련해 많은 북미화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헌신된 북미의 화인 동역자들은 2년 정도 일본에 단기 선교사나 장기 선교사로 와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신앙을 가르치면서, 선교지 일본을 경험하고, 필요한 일본어를 익히는 선교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복음을 받은 자는 전해야 한다. 일본이라는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중국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일본의 복음에 대한 필요가 긴급하고 절대적이다보니 우리는 쉽게 일본중심으로 복음의 필요성을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일본 안에 우리를, 생명의 가능성을 가두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복음은 만민에에 필요한 것이며, 그들에게 나가 전하는 것은

모든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최우선 실천항목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연령대는 비교적 젊다. 그들이 경험한 언어습득과정과 타문화 적응훈련은 세계선교 수행의 좋은 기초가 되리라 믿는다. 또한 일본의 디아스포라 화인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세계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영역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 중국교회의 2030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다. 2030년 안에 2만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부터 전세계에 보내자는 이 프로젝트에,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었다. 우리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크리스천 가운데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2만명의 1%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교회는 앞으로 상당수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교회 선교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선교현장 경험이 있는 성숙한 선교지도자들이다. 우리는 이 20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다수의 선교지도자 그룹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800-400-200 프로젝트”라 부르는 비전이 있

다.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 TC를 통해800명의 훈련된 크리스천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일본전역에 400개의 성경공부반 및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모임들을 통해200명의 선교사를 선발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이다. 두개의 성경공부반 혹은 교회가 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살며, 그 분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JCC의 한계와 도전

JCC는 분명한 비전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JCC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JCC는 일본 디아스포라 전체를 대표하거나, 일본의 화인교회들을 대표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저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간절한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현실에 안타까웠던 사람들의 기도, 연합, 헌신, 행동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JCC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전체를 대표하거나, 일본 디아스포라 화인교회들을 대표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할 뿐이다.

처음 모임과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신앙, 내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0.2%만 보지 않고, 그 너머 99.8%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집중하기를 바랬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모른척 하지 않고, 작은 힘이라도 합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된 생명들이 교회에 건강하게 소속되어 성장하길 소망했다. 일본에 있는 화인 교회들이 진심으로 부흥하길 바라는 아름다운 생각들이 춤을 추는 곳이 JCC 이길 바랬다.

이런 마음들의 연합, 기도, 헌신과 행동이 기존의 모든 일본 디아스포라 화인 기독교인들이나 화인교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역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는가! 힘을 다했지만, 늘 역부족인 것을 경험했다. 현실적으로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함께 할 수 있었으나,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수 없고, 저마다의 교회가 중요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저마다의 교회가 가진 고유한 생각과 추구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JCC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JCC의 한계다. 그러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JCC는 최우선 순위는 복음을 듣지 못한 99.8%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들중 제자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번의 기회라도 더 제공하는 것, 많은 잠재적 인력과 재정을 갖고 있는 일본 화인 크리스천 사회가 세계선교에 너무나 잠잠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더욱더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것에 있다. 99.8%의 양무리가 우리 밖에 있고, 단 한명의 선교사도(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 단독 파송해 세계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디아스포라 화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막중한데, 어떻게 다른데 마음둘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일을 다하기에도 시간과 힘이 부족하다.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 안에 새로운 흐름을 조성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JCC가 처한 도전이다.

5)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통한 일본 선교

앞으로 중국 출신 선교사는 일본 선교에 있어서, 서구출신 선교사, 한국출신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서, 제3세대 선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다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이라는 세계 최대 선교지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생명의 씨앗이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

사역했던 한 노(老) 선교사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 “이제 서구출신 선교사, 한국출신 선교사의 일본 선교에 있어서 영향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일본 선교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겁니다.” 앞으로 중국 출신 선교사는 일본 선교에 있어서, 서구출신 선교사, 한국출신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서, 제3세대 선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본교회에 줄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견디어 오면서 형성된 중국의 영성은 일본교회에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복음에 대한 긍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마음 밭은 일본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 중국선교사들은 이런 중국인들이 가진 장점을 일본선교에 선물로 가져 올 수 있다.

동경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다. 수양회를 갔는데, 대부분이 중국인들이었고, 한 두명의 일본인이 가족관계로 참석했다. 중국인 자매와 결혼한 한 일본인 남편이었는데, 수양회에서 계속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갈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교회에는 나와서 복음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지만 과연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한 갈등이었다. 상담도 하고 하루가 더 지났다. 그 다음날 이 일본인 남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일본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에 반응하여 결신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가 중국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그와 함께 수양회에 와서 생전 처음 복음을 듣는 중국인들의 반응과 변화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선교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일본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발화점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왠만해서는 불이 안붙는다는 이야기다.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반응 발화점(發火點)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선교는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일본선교를 일구었던 일세대(一世代) 선교사들은 북미, 유럽 출신의 선교사들었다. 근래에 와서는 이세대 (二世代)선교사로서는 한국 출신 선교사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일본선교는 삼세대 선교의 등장을 기다리는데, 삼세대(三世代) 선교사는 중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될 것이다. 중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일본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이들은 일본 선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얼마전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한 사역자 가정이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며, 지하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정식으로 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일본 선교사 비자를 신청했는데 무사히 비자를 취득했다. 중국의 가정교회 출신이 일본에 선교사로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중국인 가운데 선교사 비자(종교비자)를 취득한 경우는 간혹 있었다. 중국계 미국 캐나다 화교들이 선교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중국에서 가정교회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비자를 취득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중국선교사들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중국과 일본의 불편한 역사와 국가간의 관계는 그동안 불행한 이웃의 관계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한중일이 얼마나 불행한 이웃인가를 유럽에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유럽은 수 많은 전쟁을 치러온 적대국들로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EU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반면 한중일은 여전히 늘 긴장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선교사의 일본에서의 선교활동은 막힌 담을 허는 십자가 보혈과 사랑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에서 살아간다. 이들의 주변은 늘 일본인들이다. 일본인들과 국제결혼한 분들도 많다. 이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나는 것은 그들의 가족, 주변인들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

32) http://threetogether.org/?ckattempt=1 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 안에서 일본과 중국을 잇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막힌 담을 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되어서 동아시아 기독청년 모임(東亞基督青年大會)라는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미 6년간 6회의 모임을 동경, 제주도, 홍콩에서 개최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여, 함께 예배, 기도하며 서로 친구가 되고자 결성된 모임이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는, 특히 한중일의 긴장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모임이다.[32] 모임의 중심중 하나가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다.

6)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이제 걸음마를 떼고 발전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 사역은 "선교적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다리,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세계 선교의 다리를 놓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일은 좀 더 많은 동역자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도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 당신의 기도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양식, 힘, 생명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쓰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다. 구체적인 기도제목은 JCC홈페이지(tokyo-jcc.com)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다면, 당신에게 정기적으로 기도제목을 업데이트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당신은 일본과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다. 헌금은 자기 희생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기를 부탁한다. 구체적으로JCC 전체 운영을 위해서, 전도대회를 위해서, JCC Training Cente와 동아시아 아카데미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다. 이 헌금은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며, 세계선교에 동참케 하는 밑걸음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헌금방법은 “http://tokyo-jcc.com/contribute1/ ” 를 참고하기 바란다.

셋째, 장단기 방문을 통해 직접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심히 부족하다. 그래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주인되신 하나님이 이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시기 도록 기도하고 있다. 일꾼을 보내시는 것은 주인되신 하나님의 일이요. 당신의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일본의 화인교회도 사역자가 없는 곳이 많다. 일본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하기도 어렵고 양성하기도 어렵다. 지난 2년간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의 목회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목회자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는 곳이 일본이다. 일본은 향후 최소 400여명의 화인 목회자가 필요하다. 당신이 교회 목회와 개척에 훈련된 목회자라면 적극 고려해 보기 바란다.

또한 JCC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해 사역할 단기선교사(몇 주~ 2년)와 그리고 장기선교사를 찾고 있다. 당신은 일본에 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체험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사역, 대학캠퍼스 사역, 아이들 사역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경험있는 헌신

자들이 필요하다. 특별한 주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젊은이들의 이성교제, 비지니스와 신앙, 정신건강과 신앙, 선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 선교사도 필요하다. 당신이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고,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연락해 주길 바란다(dongjinghuaren@gmail.com). 당신의 부르심이 현장사역이 되도록 우리가 돕겠다.

넷째, 지금 바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 자문화권 디아스포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새로 오는 외국인들, 혹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기존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떤 면에서는 당신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당신이 한 공간에 있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이며, 후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4.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리서치 (2015.8–2016.5) – 사역의 현황과 가능성

아프리카 교회는 남반구(南半球)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중국교회는 북반구(北半球)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강하게 성장한 교회다. 이 두 지역의 선교적 만남이 아프리카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이라는 선교의 현장에서 가능하다. 이 두 세력의 선교적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꽤 궁금하다.

두번째 안식년 기간을 맞아 케냐 나이로비에서 안식년을 보냈다. 아프리카에서 안식년을 보낸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각들로 채워지고 싶었다. 두번째는, 아프리카에 최근 몇 년간 물밀듯이 몰려온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파악하고 싶었다.

아프리카는 현재 폭발적인 성장중에 있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인구는 2012년 지구촌 인구 7명중 1명이, 2050년 5명중 1명, 2100년이면 3명중 1명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한다.[33] 경제적으로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니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1년 – 2010년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33) 박경덕,「기회의 땅 아프리카가 부른다」(서울: 원앤원북스, 2012), 108

성장률을 기록한 10개국가운데 6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34]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 독재, 내전, 테러, 부패, 질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좋은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고, 그 방향전환과 성장, 발전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대세(大勢)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에 중국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 이유로 중국은 아프리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전략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 중국의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기업의 특징은 필요한 모든 인원(하급 노동직까지도)을 중국에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마친뒤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프리카에 잔류해서 자신만의 비지니스를 개척한다. 최근 아프리카 중국인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 전아프리카 대륙에 200만-250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나 많은지 아프리칸들은 아시안만 보면 일단 "니하오(중국어 인사)?" 한다. 아시안은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급격하게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10년을 넘게 자리잡은 사람들로부터 최근에 정착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현지 직원에서부터 조그

34) 박경덕,「기회의 땅 아프리카가 부른다」(서울: 원앤원북스, 2012), 12

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얼굴은 다양하다. 다양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그래도 아프리카가 중국보다 기회가 많은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에서부터 에이즈에 걸려 사경을 헤메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아프리카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급격한 증가와는 달리,이들 가운데 복음전파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화푸(世界華福中心)의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는 32개의 중국인 교회와 4개의 기독교 단체가 있다고 한다.[35] 지금은 이 통계보다는 더 많은 수의 교회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200여만명의 대륙전체에 단 40여개의 모임이 존재할 뿐이다. 현지에서 보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화인교회의 현실은 더욱 어렵다. 케냐의 경우 총 5만여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 4곳의 교회가 존재하며, 모든 교회의 인원을 합쳐도 70-80명 정도다. 전체 화인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이 펼쳐지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남아공화국에는 전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절반 정도가 있고(SACON에서는

35) 華福中心研究及發展部, "海外華人人口與華人教會統計 ," 「 今日華人教會 」 2011년 2월 , 10.

70만으로 추정한다[36]),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도 절반 정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현지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뿐 아니라, 일부 아프리카 주재 서구선교사들과 아프리카 현지 교회가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11년 SACON이라는 네트워크도[37] 결성 되어서 현지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위해서 현지 교회를 훈련하고 동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가벼운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다른 기타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한 단계 앞선 사역의 형태다.

짧긴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구이민 세대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듯 하나, 신이민(新移民) 세대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38]신이민 세대를 향한 사역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주변 여건

---

36) http://www.onechallenge.org/2014/03/01/spotlight-southern-africa-chinese-outreach-network/

37) SACON(The Southern Africa Chinese Outreach Network): 2011년 결성되어 남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복음화와 제자훈련을 목표로 하는, 교회, 선교단체 등의 네트워크 연합체다.

38) 여기에서 신이민(新移民) 세대는 주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때를 같이하는 중국 출신의 이민자, 유학생, 사업가 등을 가리킨다.

은 매우 좋은 편이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관심있고 동역할수 있는 아프리카 교회도 많은 편이다. 아프리카 교회와 비자, 장소, 자원 봉사자 등 협력할 여지가 많다.

아프리카 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전세계 기독교 인구의 무게 중심은 2000년을 기점으로 이미 아프리카로 옮겨졌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위한 아프리카 교회와의 협력은 아프리카 교회의 선교 동력화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들이 아프리카 교회와의 협력하에 탄생, 성장하는 것은, 현재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시민들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감을 낮추고 상생(相生)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사하라 이북지역, 즉 북아프리카 지역, 더 나아가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지역은 이른바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 외국인은 중국인들이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사하라 북부 아프리카, 중동을 이어지는 선상(線上, Line)에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있다. 중요한 선교 거점(據點)에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교회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상생(相生)의 선교모델을 이 지역에 현지화(現地化) 할 수 있다면, 꽉 막힌 중

동지역 선교의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새롭게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는 현지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안에 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는 것이다. 중국인 2세들에게 모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언어센터, 중국인 사회와 현지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복지센터, 중국의 전통 침술과 선교를 연결하는 의료센터 등을 통해 먼저 현지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에 자리잡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현지인들의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센터들이 거점으로 연결될 때 새로운 선교 루트가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이어지는 곳에 생겨날 것이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필요가 존재한다. 복음을 듣지 못한 200만-250만명에 이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이 추수의 때요 일해야 할 때이다. 대부분의 지역에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초기 형성기에 복음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다면 이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뿐 아니라, 아프리카 사회에도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이 일은 아프리카 교회의 세계선교 동력화(動力化)를 도울 수 있다. 아프리카 교회는 앞으로 최대의 선교사 파송지역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이 현실화 되

려면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선교에 많이 참여해서 실제 선교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것이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현재 아프리카 교회가 선교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선교의 현장이다.

아프리카 교회는 남반구(南半球)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중국교회는 북반구(北半球)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강하게 성장한 교회다. 이 두 지역의 선교적 만남이 아프리카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이라는 선교의 현장에서 가능하다. 이 두 세력의 선교적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꽤 궁금하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 만남은 새로운 선교의 길 하나를 더 만들어 낼 것이다.

결론

성밖의 박넝쿨이 주는 안전지대와 편리지대에서 탈출하라!
그것들이 주는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어질 기쁨의 취기(醉氣)에서 깨어나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 눈부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욱 많이, 넓게 이동할 것이다. 이 시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디아스포라" 라는 그룹을, "새로운 대륙"으로 그리고 "선교적 디아스포라 "로 재탄생시켰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자국내 디아스포라 사역은 지금 당장 자신이 있는 곳에서 동참할 수 있는 선교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끈다면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짧게 나누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 선교로의 초청이다. 요나의 이야기다.

구약의 요나서는 짧지만 매우 강력한 선교의 이야기를 다루는 독특한 성경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요나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가서 심판의 메세지를 전하라고 하신다.(욘1:2)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증오하던 원수의 나라였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메세지

를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원수된 백성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을 누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도망쳤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풍랑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어쩔수 없이 겉으로는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세지를 외쳤다. 그는 매우 성의없게 외쳤지만(욘3:3,4)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돌이켰다.(욘3:5-9) 하나님은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욘3:10)

요나는 이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다. 원수와 죄인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아서 화가 났다. 그는 화가나서 니느웨 성밖으로 나가서 성의 심판을 기다렸다.(욘4:4.5) 그는 성안에서 성밖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심판이여 빨리 오라!" 분노의 마음을 안고 니느웨 성안에 임할 재앙을 기다렸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마련해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그는 이 박넝쿨 그늘이 너무 좋았다.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Jonah was exceedingly glad because of the plant)"(욘4:6, 새번역 ESV)라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온다. 요나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기쁨" 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다. 요나는 성안에 곧 심판이 있어도, 분노가 자신의 마

음을 이미 심판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작은 그늘이 너무 너무 좋았다. 박넝쿨이 준 그늘이 편하고 좋아서 요나서 전체를 다 뒤져도 나오지 않은 “최고의 기쁨(exceedingly glad)”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비록 선지자이지만, 긍휼, 사랑, 함께함,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나는 “하물며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4:11) 이 말씀에 나타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모른다.

요나는 성안에서 나와 성밖에 있었다. “안전지대(Safety Zone)”다. 햇빛을 피하는 박넝쿨 그늘 안에 앉아 있다. “편리지대(Comfortable Zone)”다. 안전함, 편안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한 최고의 기쁨이었다. 안전지대에 머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박넝쿨의 그늘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삶은 위험하다. 하늘을 찌르는 가짜 기쁨에 취해서 바로 자기 눈 앞에서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자신을 성안과 성밖으로 나눴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안전한 곳(성밖)을 추구하며 성안의 사람들

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야말로 그들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인공위성으로 중계되는 이억만리 타국의 이야기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교는 실종된다. 안전지대에서는 죽음과 멸망을 앞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다. 편리지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올 수 없다. 우리가 깨달아야할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성밖의 박넝쿨 그늘은 결코 영적으로는 안전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은 곳이라는 사실이다.

위험과 고통의 공감 없이 선교가 가능할까? 오늘도 나를 가려주는 박넝쿨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타는 듯한 안타까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 속지마라! 안전함과 편리함이 우리를 성밖으로 내몰고 그늘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2011년 3.11 대지진으로 2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이뿐아니다 일본은 종족단위로 볼때, 매일 사망자중(평균 3,279명, 자살자 86명, 구주를 아는 사람은 겨우 4명) 가장 높은 비율이 심판대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나라다.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도 동일하다. 겨우 전체 디아스포라 중국인 인구의 0.3% 정도만이 주님을 구주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니느웨성에는 12만명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일본에는 120만명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1억2천7백만명의 일본인이 니느웨 성안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만 그러한가? 아니다 눈을 더 떠서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밖의 박넝쿨이 주는 안전지대와 편리지대에서 탈출하라! 그것들이 주는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어질 기쁨의 취기(醉氣)에서 깨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욘 4:10.11)

이 짧은 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 글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십수년간의 일들,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미천한 경험을 기초로 무엇인가 이야기 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심이 있고,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록을 남긴다.

한눈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실제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4월 25일 (Version 1.2)
지은이 박수민
펴낸곳 日本華人基督徒中心(JCC:Japan Chinese Christian Center)
전자우편 soominpark88@gmail.com
블로그 diachinese.blogspot.com
홈페이지 tokyo-jcc.com
편집디자인 박정영

日本華人基督徒中心
JAPAN CHINESE CHRISTIAN CENTER